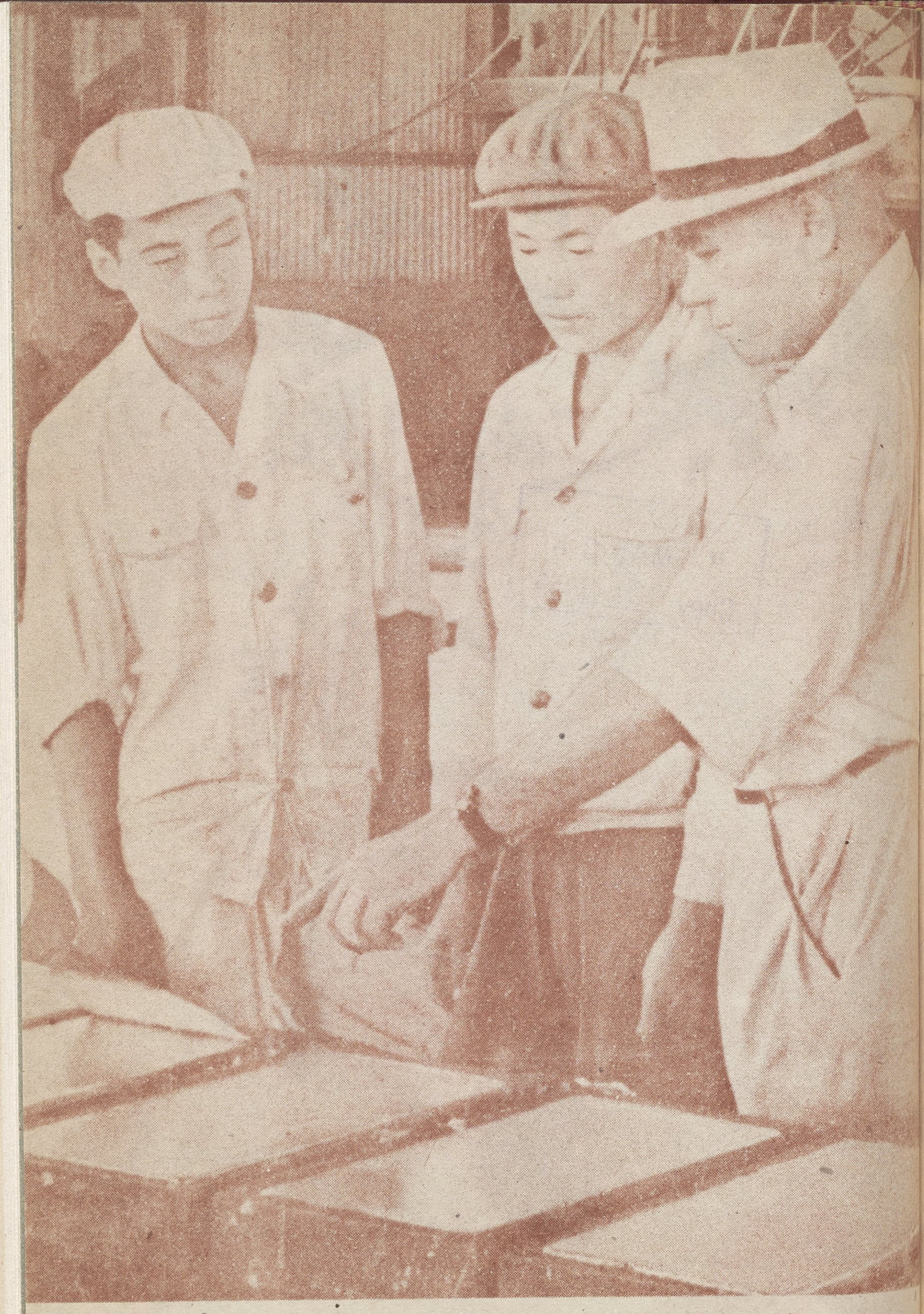

청년생활
1957.10



쏘련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남포 제련소 주조 직장)

표지 1면—사과 따는 처녀 (새 생활 농업 협동 조합에서) 리 종록 촬영

청년생활 1957. 10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영원히 로동당과 공화국과 함께

우리 조국은 지금 위대한 전변과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우리 인민이 장기간 래일의 희망으로 바라 보던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 력량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 전변의 시기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차 회의가 소집되였다.

전체 인민과 청년들의 열렬한 축하와 기대를 집중시킨 최고 인민 회의는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업들을 완수하고 폐회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차 회의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신 내각을 만장 일치로 조직하였으며 최 용건 동지를 위원장으로 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를 선거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신 내각을 조직한 것은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일치한 념원과 기대를 실현한 것이며 이 소식을 접한 인민들과 청년들은 커다란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 조직된 공화국 정부를 열렬히 지지 환영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조선 청년들은 자기들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오직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만이 자기들의 지향과 념원을 실 생활에 구현시켜 주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승리에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민이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간고한 시련을 이겨 내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것도, 폐허로 되였던 재'더미 우에 불과 4년이란 짧은 기간에 360여개소의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신설하고 전쟁 전보다 8%나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였으며 농업 협동화를 거의 완성시키고 령락되였던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은 것은 모두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조선 청년들은 인민 정권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처음으로 로동과 학습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 받았으며 성별과 직업과 신앙의 차별 없이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가하여 새 생활을 창조하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청년들은 자기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으며 그가 위임하는 어떤 어렵고 힘든 과업이라도 충실히 실행하여 왔으며 또 실행하고 있다.

전체 조선 청년들은 금번에 새로 조직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공화국 정부가 지난 기간에 그러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의 보다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가 가르키는 길을 확신 있게 전진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

금번 최고 인민 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의 장래 발전과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연설을 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연설에서 지난 기간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을 총화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혁명의 장래 전망과 신 내각의 대내외 정책을 밝혀 주시였다.

이 연설은 우리 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륭성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전투적 강령으로 된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을 깊이 학습하여 그 연설의 심오한 사상과 의의를 철저히 체득함으로써 이것을 자기들의 로력과 학습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 조선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해방 후 12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우리 조국은 통일 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은 의연히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있다. 미제의 침략 정책과 리 승만 역도들의 매국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의 경제는 파탄의 일로를 걷고 있으며 인민들은 테로와 학살, 빈궁과 무권리의 생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청년 학생들은 직업과 배움의 권리를 잃고 강제 징병의 위협 속에서 범죄와 타락의 구렁이로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국토의 분렬과 남조선 동포들의 이와 같은 불행을 더는 참을 수 없으며 하루 바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 남반부 동포들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서 구원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연설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조선 인민의 일치한 립장과 주장을 다시 한번 명시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정전 협정의 모든 조항들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켜야 한다. 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는 시급히 철거하여야 하며 남북 간의 장벽이 제거되여야 한다. 남북 조선의 병력을 각각 10만으로 혹은 그 이하로 축소할데 대한 공화국 정부의 제안이 실현되여야 하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유관 국가들의 국제 회의가 소집되여야 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공화국 북반부를 강력한 민주 기지로 더욱 공고 발전시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 1차 5개년 계획의 실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전진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연설에서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과 웅장한 전망을 밝혀 주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

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5개년 계획의 전망은 실로 웅장하고도 휘황하다. 5개년 계획이 실행되면 우리 인민에게 해마다 370만톤 이상의 알곡과 인구 1인당 17메터 이상의 직물이 차례질 것이다. 국가 자금에 의한 주택 건설은 720여만 평방메터에 달할 것이며 20만동 이상의 농촌 문화 주택이 건설될 것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아세아에서 최초로 7년제 초중 의무 교육제가 실시될 것이다.

그리하여 4, 5년 후에는 우리 나라가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될 것이며 공화국 북반부는 인민이 자유와 행복을 구가하는 지상 락원으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휘황한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여야 하며, 농업에서는 협동화를 완성하고 기술적 문화적 개조가 실시되여야 한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 위대한 혁명 임무를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 청년들이 애국적 헌신성과 창의 창발성을 더욱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 청년들은 당과 정부의 호소를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자의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당과 정부 정책의 견결한 옹호자로 그의 적극적 실천자가 되여야한다.

전체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 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법령과 인민 정권의 시책들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여 일체 반혁명 분자들과 적대적 요소들을 철저히 진압하며 적들의 간첩, 파괴, 암해 활동을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또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의 결정 실행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더욱 확대하며 5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증산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엄격한 절약과 내부 원천의 최대한의 동원을 위하여 투쟁하며 선진 기술의 도입 적용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위한 증산 경쟁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은 자기의 계급 의식과 정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에 힘쓰며 일체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여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우리 혁명 승리의 담보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에 더욱 충직하며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제국가 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 하기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전변의 시기에 처하여 있는 조선 청년들의 전투적 과업이다.

영원히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함께—이것은 조선 청년들의 한결 같은 지향이며 보다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담보이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적 정책과 그의 현명한 령도 속에 조선 청년들의 광명한 미래가 약속되여 있다.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그가 인도하는 필승의 길로 더욱 용감하게 전진하자!

평양 너는 아름답구나



김 귀 련

평양 너는 아름답구나!

진옥색 비단 띠런가 대동강은
초록색 릉라도를 안고 반기누나
소소리 높이 솟은 부벽루를 우러러
　　보며
여기 력사의 증인 모란봉은
봄 여름 가을 없이
사람들의 노래 속에 아름다워라.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쓰다듬어 본다.
임진 장수들의 손길이 닿은 이 성터와
어데런가 멀리 알아 볼 수는 없어도
샤만호가 불타던 수문 가까이를…
슬기로운 그들의 후손인 우리
또한 슬기롭게 이땅을 지켜 왔거니

내 눈에
선명히 보여오는구나, 그해 겨울이
눈이 흩날리던 어셋해 전그 때가……
헤아릴 수 없는 길을 헤치며 싸우던
우리의 젊은 인민군 용사들,
용감하던 청년 근위병들
선히 다가 오누나
당의 호소를 받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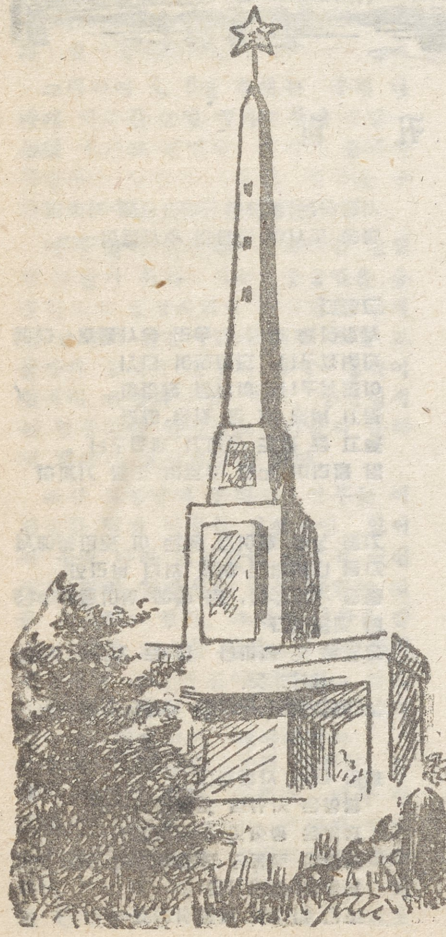
사랑하는 평양을 목숨으로 지켜낸
영웅 도시의 불굴의 투사들이……

그렇다
사랑하는 평양은 우리 용사들로 하여
지켜졌구나, 그리하여 다시
이러섰구나, 이처럼 장엄히
곧고 넓은 저 큰 길을 따라
높고 큰 집도 우리가 세웠구나
땀 흘리며 노래 부르며 또한 기꺼히

기쁜 노래 끊이지 않는 이 모란봉에서
지금 나비처럼 이쁜 처녀 날라와
춤을 추자누나, 춤 속에 뛰어들자누나
먼 옛날보다
오늘은 또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느
　　냐는 듯.
노래도 춤도 우리의 생활이라며……

평양 너를 자랑한다
　평양은 자유의 도시라고……
　평양은 평화의 도시라고……
　평양은 로동당 중앙이 있는 도시라고
　평양은 슬기로운
　조선 사람의 심장이라고……

평양의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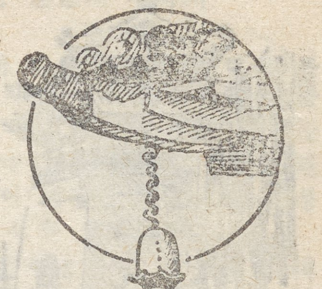
1. 아름다운 거리 빛나는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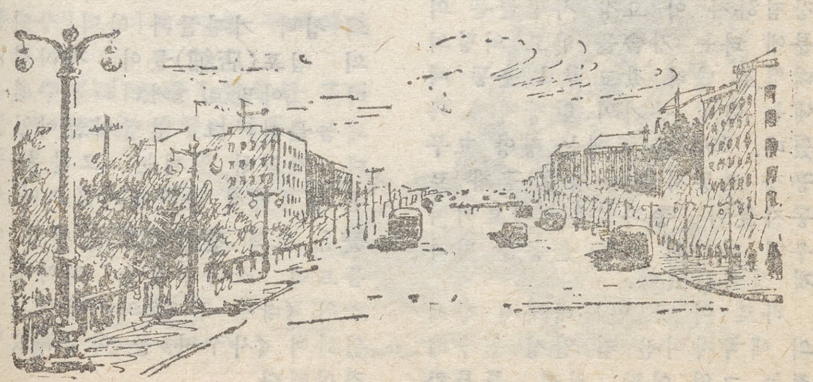
평양은 아름답다. 아까시야의 향기 그윽히 풍기는 모란봉을 소요함도 좋고, 실버들 휘늘어진 릉라도를 바라봄도 좋다. 그러나 그 보다도 청색 비단폭를 깔아 놓은 듯한 대동강변의 옛정자에 올라서 장엄한 시가지를 굽어 봄은 더욱 좋다. 또한 지척에 서해를 두고 두리엔 기름진 '평남'벌을 깔고 앉았고 땅속엔 보물이 많으니 일찌부터 살기 좋은 고장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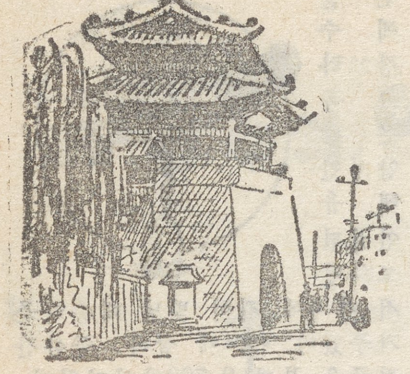
그러기 그 옛날 명(明)나라 사람은 련광정에 올라 이 절승경개를 바라보며 천하 제일강산(天下第一江山)이라 하였다. 옛날 고구려 사람들은 지금부터 1530년 전 이곳에 서울을 정하였다. 그때로부터 평양은 서경, 류경, 서도, 평양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찬란한 문화의 발원지로 북변 국방의 요새지로 유구한 세월의 걸음마를 옮겨 놓았다.

모란봉 우에 날아 갈듯이 솟아 있는 을밀대와 승인전, 부벽루, 련광정 등은 그얼마나 우아한 건축물들이며 대동문, 보통문 등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성곽 문루(城廓門樓)의 걸작들이냐! 실로 우리들의 선조들은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천재적인 문화재들을 남겨 놓았다.

또한 예로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항상 용감하였다. 그 옛날 고구려의 젊은 청춘들은 새깃을 꽂은 곳갈을 쓰고 악랑언덕에 살진 말을 달려 활쏘기를 하면서 무예(武藝)를 닦았고 외적이 침략하면 용감히 그를 막았다. 그들은 수(隨) 나라의 백만 대군이 이 나라를 침략하였을 때도 명장 을지문덕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을 청천강 깊은 물에 수장도하고 혹은 평양성안에 유인섬멸도하면서 청사에 길이 빛날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 때 살아 돌아간 적군은 불과 2,700명이라한다. 그후 당 나라 침략군과 80만 거란 침략군을 물리치는 싸움에서도 그들은 항상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특히 왜놈들이 이 강토에 쳐들어 온 임진조국 전쟁에서도 용감한 이 고장 사람들은, 서산 대사, 김응서, 병근 등이 거느리는 의병과 조선군에 가담하여 원쑤들에게 무리 죽엄을 주었으며 적들에게 림시로 강점되였던 평







양성을 탈취하였었다. 그 때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김 응서로 하여금 왜장의 머리를 베이게 한 애국 렬녀 계 월향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그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인가!

그들은 또한 19세기 중엽 조선 침략을 목적하고 대동강에 기여든 미국 해적선 《샤만호》와 용감히 대전하여 그를 강물우에 불살라 버렸었다.

1910년 일제가 조국 강토를 강점하자 이 고장 사람들은 의분에 타는 가슴을 안고 의병의 대렬로 달려 갔고 3.1 운동 때에는 인민 봉기의 앞장에서 싸웠다. 1920년 대에는 평양 고무공장 로동자들과 양말 공장 로동자들이 총파업을 이르키여 우리 나라의 로동 운동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바로 이 곳 만경대에서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 일성 원수께서는 그의 어린 시절 름름한 애국의 기상을 다듬었으며 분연히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장도에 오르시였다.

2. 토성랑의 눈물

토성랑—이 거리와 그 치욕스러운 이름은 어느 때, 왜 생겼더냐? 보통강 맑은 물결이여! 그대는 자기의 노호한 흐름에 빈민들의 눈물의 홍수를 합치던, 그 수난의 시절을 평양과 함께 영원히 가슴 아파 하리라. 일제 강점 하의 36년 간 평양은 지옥의 거리, 어둠의 거리였었다.

우리 나라 위대한 민족의 기상과 정서와 재능을 온 세상에 자랑하던 아름다운 정자들, 훌륭한 문화 유적들은 섬나라 강도들의 《게다》에 짓밟히워 황폐하여졌었다. 그 당시 거리의 가장 살기 좋은 중심부들엔 부청(府廳), 경찰을 비롯한 일제의 침략 기관들과 악덕 상인들의 점포(店舖)들이 자리잡았다. 그야말로 거리의 주인은 왜놈들과 그 앞잡이들이였었다. 간악한 일제는 모란봉 푸른 동산마저 발가벗기였으니 놈들은 고색 찬연하고 울창한 아름드리 소나무들을 찍어내고 소위 《내선 일체》의 친격화를 위하여 《사꾸라》를 이식하였던 것이였다.

《토지 조사령》의 마수에 사랑하는 향토와 집과 삶을 빼앗긴 평남 사람들…숭도 사람들이 하염 없는 눈물을 지으며 대동강을 건너 《만주》로 류랑의 길을 떠났었다. 평양의 건설자들인 슬기로운 우리의 선조들도 왜놈들에게 짓쫓기워 거리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지 살림을 차린 것이 바로 보통강을 마주 보고 낮우히 서있던 토성랑과 보통문 거리, 동평양 등이 아니였던가! 이 빈민굴의 거주민들은 거개가 노예 로동의 시달림 속에 매달려 가는 로동자들, 지게'군, 땜쟁이, 구두닦기, 거지들이였다. 그들은 모진 추위와 기아 속에 얼어 죽였고 굶어 죽었다. 토성랑 사람들은 보통강변의 개흙바닥을 두져 낟알을 심고 거기에 바람막이 오막살이를 지었다. 그러던 곡식이 여물기 전 장마철엔 범람하는 보통강 물결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땅을 두져야만 했었다.

토성랑의 눈물! 영원히 흘러 간 저주로운 세월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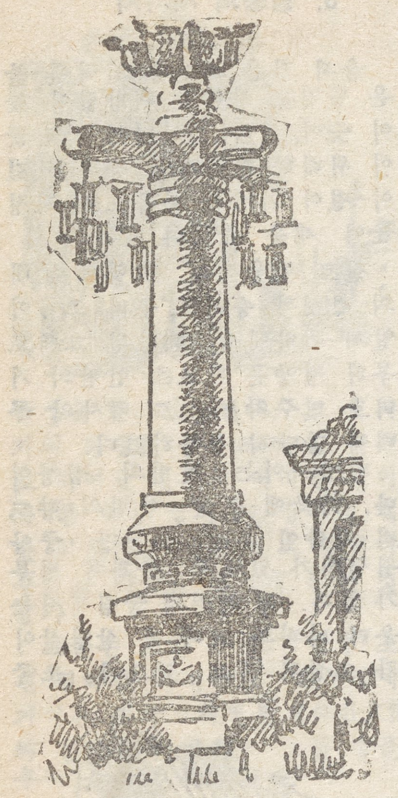
3. 영웅의 서사시

유서 깊은 모란봉 언덕엔 붉은 별빛도 찬란한 해방탑이 높이 솟아 있다. 이땅의 사람들이 위대한 해방자의 공적을 길이 길이 기념할 마음으로 지성들여 세운 탑이다.

실로 영웅적인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승리로 우리 조국이 일제 기반에서 해방된 그때로부터 평양은 비로소 인민의 거리로 민주의 수도로 력사의 무대에 당당히 등장하였다.

평양—이는 인민의 심장이다. 이곳엔 조선 인민의 향도적 력량인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있으며 공화국 정부가 있다. 이 거리의 중심에서는 우리 나라의 크나 큰 살림살이가 보살펴 지고 있으며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의 휘황한 앞날이 설계되고 있다. 그러기 오늘 남조선 형제 자매들은 지금 이곳으로 부터 울려퍼지는 평화 통일의 목소리에 힘찬 고무를 받으면서 우리의 평양을 흠모하며 무한히 동경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 민족의 찬란한 과학, 문화, 예술을 꽃피우고 있으며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가지가지의 민주 개혁을 조직하였고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조직하였다.

8.15 해방 후 평양은 당과 정부의 령도하에 전변의 나래를 펼쳤다. 눈부신 건설과 정돈의 나날이 흘렀다. 옛 정자들과 문화 유적들은 옛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로 되살아났고 로성랑, 동평양 빈민굴에도 신생의 봄빛이 따뜻하게 깃들었다.

부청, 경찰이 호통치던 거리의 중심부들엔 정치,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자들의 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차기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위대한 전변속에 인민들의 창조적 로동이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이르킨 전쟁의 참화로하여 평양은 또다시 고난의 길을 걷게 되였다.

미제 날강도들은 이 거리에 그야말로 폭탄의 불비를 쏟아부었다. 1952년 한해만 하여도 원쑤들은 이 거리에 3평방 당 1개의 비례로 총52,380발의 폭탄을 떨구었었다. 그로하여 전쟁 기간에 우리의 수도는 6만 4천여개의 건물들을 소각당하였으며 헤아릴 수 없는 물적, 인적 손실을 당하였었다. 일조에 평양은 황량한 쑥밭으로 되고 말았다.

허나 평양은 굴하지 않았다.

영예로운 평양의 수만명 아들딸들은 총을 들고 멸적의 전선에로 달려갔으며 영광의 시민들은 땅 속에 공장을 만들고 전시 생산을 보장하였다. 참말이지 그 무서운 철화 속에서도 모란봉 지하 깊이 극장을 만들고 연극과 음악을 감상하는 이런 인민들을 뉘라서 굴복시킨다더냐! 평양은 불굴의 상징이 되였고 용감한 사람들의 노래로 되였다.

평양의 영웅성은 전후 복구건설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였다.

《모든 것을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하여!》 조선 로동당의 이 구호를 받들고 피로써 지켜낸 수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건설장으로 달려 왔었다. 그리하여 황량한 재'더미우에 수도의 거리는 다시 나래치며 일어서기 시작하였다.



전후 3개년 기간에만 하여도 82개소의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 건설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또는 190여 평방메터의 주택들과 20여개소의 공공 건물들이 신축되였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땅굴 속으로부터 다층 아빠트로, 문화적인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였다. 70여개의 학교와 14개소의 병원들도 신축되였다. 지금 쓰딸린 대통로와 인민군 거리를 비롯한 현대적인 아름다운 거리들엔 뻐스들의 래왕이 잦고 신설된 모란봉 극장, 대동문 영화관들에선 행복한 젊은 청춘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 있다. 지금 영웅도시 평양은 날마다 기적과도 같이 자라나고 있다. 앞으로 25년간의 건설 전망을 가지는 영웅 도시의 앞날은 참말로 황홀하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만 하여도 새롭게 일어설 수 많은 주택 지구들을 비롯하여 수십만 평방메터의 푸른 록지들이 곳곳에 형성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우리의 수도는 그 얼마나 더 아름다우랴!

오늘 평양은 전세계 선량한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가끔 머나먼 형제 나라들의 벗들도 찾아오며 과학, 문화 예술 인사들도 래방하고 있다.

아! 사랑하는 청춘 도시 평양이여! 유구한 전통을 담아 싣고 대동강의 흐름과 함께 길이길이 번영하라!

다같이 웨치자!

—광주 학생 운동 28주년을 맞으며—

한 진 대

내,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울던 때
이 땅을 뒤흔든 광주의 높은 웨침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고나,
가슴에 벅차고나.

내 가슴 이렇게 설레임은
피 흘리며 쓰러진
용감한 청년들을 애석해선가
왜경의 총칼을 맞받아 일어선
그들의 위훈을 잊지 못해선가?

그렇다 틀림없이——
세월은 흘러 아득해도
위훈은 언제나 새롭거니,
내 가슴 어이 뜨겁지 않으랴!

…하나 그것 뿐만은 아니다

그것은—우리의 용감한 아버지와
　　형들이
그처럼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여
그처럼 학원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던 바로 그 자리에
그처럼 원하던 독립은 없고
그처럼 바라던 자유도 없기 때문…

말하라 원한에 사무친 광주여
허덕이는 남쪽 땅이여
오늘은 그 어떤 독사가
너의 허리를 칭칭 휘감고
마지막 고혈까지 빨려 하는가?

그 어떤 아귀들이,



끼니를 굶으며 나가는 교문 앞에서
피비린 총창을 휘두르며
학생들에게 철갑을 눌러 씌우려하는
　　가?

모든 사람이 대답하리라!
토굴 속에서 배고파 우는
남쪽 땅 아이들도 대답하리라!

《그것은 미제다!
왜놈은 아버지 학교를 빼앗고
양키는 우리 집을 불 살랐다》

《그것은 미제다!
일제는 형을 묶어 가더니
미제는 어머니마저 빼앗아 갔다》

《그것은 미제다!
이 땅에 첩첩히 서린
빈궁과 눈물, 한탄과 원한—
그 모든 불행의 씨앗이
바로 미제 살인귀들이다!》

뉘라서 이대로 참는다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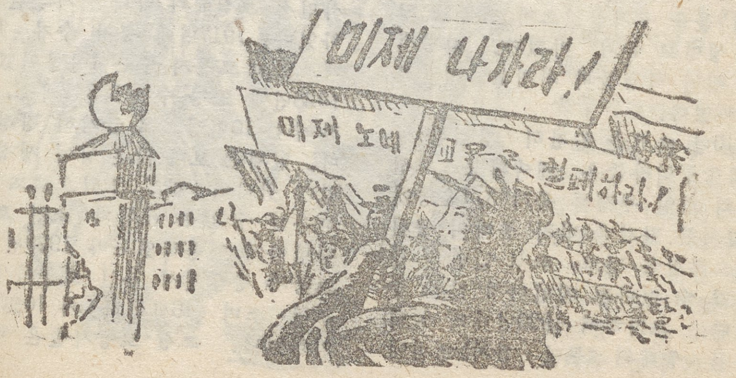
세기를 두고 남쪽 땅 형제들은 노예가
　　아니며
한사코 조국은 불이 아니다.

…남쪽 땅에 도사린 마귀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맥박이 한줄기로 뛸 때
오, 거기 행복한 락원이 피어나리라
다시는 피어린 광주가 되풀이 되지 않
　　으리라!

하나의 조국—푸른 하늘 아래
영원한 생활의 봄을 맞기 위하여
우리의 수 많은 학원들에서
더 많은 박 지원과 리 순신을,
퀴리와 멘델레에브를,
그리고 쉑스피어와 톨스또이를 얻기
위하여

너 불행한 남쪽 땅 청년들이나
우리 행복한 북반부 젊으니들이나
다 같이 싸우자, 웨치자!

《물러가라 미제여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이다!》



광주학생 운동

인민 경제 대학 조선사 강좌

황 공 률

광주 학생 운동 28주년을 맞는 공화국 청년 학생들은 지금 선배들의 거룩한 애국 전통을 따라 배우면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배려 속에 행복한 배움의 길을 정진하고 있다. 누구는 기사로 누구는 학자로 누구는 작가로 실로 그들에게 있어 희망찬 앞길은 넓고도 자유로우며 행복에 가득차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오늘의 행복, 오늘의 자유를 위하여 28년 전 조선의 학생들은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항거의 홰'불을 추켜들었으며 귀중한 청춘의 생명도 즐겨 바쳤다. 그당시 조선 청년 학생들의 처지는 정말로 참담하였다.

1910년 조선을 완전히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계속되는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과 특히 3,1운동에서 강력한 반격을 받자 종래의 통치 방법으로서는 결코 조선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래의 《무단 통치》대신에 소위 《문화 통치》를 하게 되였다. 그러나 일제의 《문화 통치》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였다.

그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기타 등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떠들면서 그 뒤에는 형사와 헌병을 숨기게하고 적으나마 반일 감정이 표현만되면 곧 체포 구금하였다. 즉 《문화 통치》란 종래의 학살과 테로적 방법에다가 회유와 매수 그리고 기만 정책을 더 가한 것에 불과하였다.

일차 세계 대전시에 막대한 전시 리윤을 얻은 일제는 1920년 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에다 막대한 자본을 투하하였다. 1917년에 공장 수가 1,358개소였고 로동자 수는 4만명이였다면 1928년에 공장 수는 5,342개소, 로동자 수는 10만명으로 급격히 장성하였다. 일제는 보다 많은 잉여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값싼 로임으로도 능히 고용할 수 있는 부인과 소년 로동을 광범하게 채용하였는바 1929년 현재 로동자 총수에서 부인 로동이 32%, 소년, 소녀 (16세 이하) 가 10%를 찾이하였다. 조선 로동자들은 하루에

12—16시간의 로동을 강요당하였고 하루 평균 40—50전으로부터 소년들은 최저 6전 까지의 로임을 받았다. 당시 최저 생활을 하려고 하여도 적어도 하루에 일원은 필요하였다. 농민들의 생활도 극히 비참하였다.

일제는 해마다 더 많은 쌀을 실어갔고 따라서 농민들은 더욱 령락하여갔다. 그리하여 조선인 1인당 미곡 소비량은 현저히 저하되였다. 1912—1916년 평균 조선인 1인당 미곡 소비량이 0.71석이였는데 1927—1931년 평균은 0.47석으로 줄어 들었다. 이리하여 조선 인민은 《만주》에서 실어온 썩은 좁쌀로 겨우 입에 풀칠하게 되였다. 이 시기 청년 학생들의 처지는 매우 곤난하였다. 일제는 강점 초기부터 식민지 노예 교육을 실시하였다. 놈들에게는 《사환군》과 친일적 인테리가 필요했으며 새로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유식한 노예가 필요하였다. 바로 학교를 이러한 목적에 리용하였다. 그러나 조선 청소년들은《노예 교육》아나마 자유로히 받을 수 가 없었다. 1928년 현재 학생 수는 전체 학령 아동의 18% (일본 학생도 많이 포함됨)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놈들은 학교에서 《일본 정신》을 주입시키며 조선어와 조선 력사를 전혀 가르키지 않았다. 놈들은 또한 봉건적 악습과 미신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이 선진 과학 사상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선진적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보급을 백방으로 가로 막았다. 적으나마 반일 감정을 품은 학생은 발각되면 곧 출학되였다. 그러나 일제는 조국애에 불타는 조선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피끓는 심장을 결코 가로 막지는 못하였다. 이리하여 청년 학생들은 10월 혁명 이후 로동 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인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보급과 아울러 급격히 앙양되고 있던 로동자, 농민의 운동과 발맞추어 힘찬 투쟁에 궐기하였다. 3.1운동에서의 청년 학생들의 투쟁이 바로 그것을 실증하는 것이였다. 1920년대 말 로동 운동의 새로운 앙양과 함께 청년 학생 운동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바로 광주 학생 운동은 당시 이러한 혁명적 영향하에 일어난 반일 학생 운동이였다.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이 이러나게된 직접적 동기는 전라 남도 광주에서의 조선인 중학생과 일본인 중학생들과의 충돌이였다. 즉 1929년 10월 30일 광주—라주 간의 기차 통학

생들 중에서 일본인 중학생이 광주 녀자 고등 보통 학교 녀학생을 희롱하였다. 본래부터 반일 감정을 품고 있던 조선 학생들은 크게 격분하여 차내에서 정론하다가 광주역에 하차하자 조, 일 학생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자 곧 일본 경찰이 달려와서 조선인 학생들을 구타하고 검거 투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기자는 일제의 어용 기관지인 《광주 일보》에 도리여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것처럼 사실을 꺼꾸로 보도하였다. 일본인 학부형들은 조선 학생을 엄벌에 처할 것과 그들을 퇴학 처분시킬 것을 강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일본인 중학교에서는 교장을 비롯하여 군사 교관 등의 직접적 지휘 하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곤봉, 격검대 등을 가지고 조선인 통학생들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날강도들의 행동은 광주 학생들과 시민들을 크게 격분시켰다. 광주 고보 학생들을 비롯하여 사범, 농업 학교 학생들은 곧 역전으로 달려갔으나 그들은 적수 공권이였다. 조, 일 학생들 사이에는 치렬한 격투가 벌어 졌다. 그러자 또다시 일본 경찰이 와서 조선 학생들을 구타, 검거 투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치렬한 투쟁의 길로 나섰다. 마침 11월 3일은 소위 《명치절》이여서 광주 시내는 인산 인해를 이루었다. 학생들은 이것을 좋은 기회로 리용하였다. 광주의 조선인 학생들은 여러 편대로 나뉘여 시내의 요소 요소를 지키고 있다가 《신사 참배》를 하고 돌아오는 일본인 학생들을 습격하였다. 다른 일대는 허위 보도를 한 《광주 일보》사를 습격하고 기계에 모래를 퍼넣는 등으로 그를 파괴하여 버렸다. 뿐만 아니라 격분한 학생들은 일제히 동맹 휴학을 진행하였고 일대 시위를 전개하였다. 11월 3일의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학생들의 통일과 단결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일제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과 반항은 더욱 높아갔다. 학생들은 전라 남도 로동 련합회, 인쇄 직공 조합, 청년 련맹, 농민 조합 대표들과 회합을 가지고 이 운동을 더욱 확대 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11월 12일 광주 장날을 리용하여 광주 시내 학생들은 《일제를 타도하라!》《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피검자들을 즉시 석방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일대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수 천매의 삐라를 산포하였다. 이 시위 대렬은 곧 일제의 무장 경찰 및 소방대들과의 류혈적인 투쟁으로 화하였다. 시위 대렬에는 점차 어린 학생들과 학부형들 그리고 로동자, 농민, 소시민들이 망라되였다.

일제는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 검거 투옥하였다. 이날 시위에서 200여명의 조선 학생들이 다시 투옥 되였다. 광주 학생들이 뿌려 놓은 혁명적 불씨는 전국 방방 곡곡에 급속히 퍼져서 조선 인민의 들끓는 심정을 폭발시켰다. 그리하여 도처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운동이 고조되였다. 이리하여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식민지 노예 교육, 민족적 차별 정책에 대하여 쌓이고 쌓였던 조선 청년 학생들의 원한은

일시에 폭발하였다. 서울,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학생들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광주 사건을 참을 수 없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원쑤다. 학도들! 거리로 나아가 우리들의 힘을 시위하자!》라고 결의를 다지면서 시위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일제의 타도,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 민족 차별



정책의 폐지, 일본인 교원의 배척 등 구호를 부르며 노도와 같이 행진하였다. 이들 학생들의 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그후 6개월이나 계속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불 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29년 11월 부터 1930년 4월 까지의 6개월 기간에 이 학생 운동에 참가한 학교 수는 194개 학교(중학교 136, 전문 학교 4, 보통 학교 54)였고 그에 참가한 학생 수는 58,000 여명이 였다.

일제는 운동 참가자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 구금하였다. 놈들은 보통 학교 학생들까지 체포 구금하는 야수성을 적라라하게 들어 내여 놓았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의하여 드디여 이 학생들의 운동은 진압 되고 말았다.

그러면 광주 학생 운동과 그를 뒤이여 일어난 전국적 학생 운동이 실패하게된 중요한 원인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이 운동이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진보적 학생들에 의하여 지도된 전국적 학생 운동이였으나 당시 우리 나라에는 아직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 새형의 당이 없으며 따라서 이 운동에 반일 감정을 가진 전체 인민들을 망라시키지 못하였으며 각처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공동의 투쟁 강령을 들고 싸웠음에도 그들은 통일된 력량으로서 적을 때려 부시지 못하였다.

둘째로 이 운동이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급격히 앙양되고 있던 로동자, 농민의 운동과 밀접히 련결되지못하였으며 일부 전실치 못한 공산주의자들의 변절과 타협 로선도 이 운동 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일제의 가혹하고 야수적인 탄압이 역시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제반 원인들에 의하여 학생 운동이 비록 실패하였으나 그것은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 사상에서 커다란 력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학생 운동을 통하여 조선 인민들은 일제가 얼마나 교활하며 야수적인 날강도인가를 또다시 목격하였고 이 운동은 인민들의 반일 감정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하여 조선 청년 학생들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투지를 드높이 시위하였으며 청년 학생들의 운동이 계속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광주 학생들이 바라 마지 않던 행복한 사회는 오늘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루워졌다.

그러나 미제 강도배들이 강점한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우리 선배들이 피흘려 싸운 그 간절한 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실업의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으며 배움의 자유와 꽃다운 청춘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있다.

남반부 형제들을 구원하는 길—그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속히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 북반부 전체 청년 학생들은 28년 전에 항쟁의 홰'불을 높이 추켜든 선배들의 애국 전통을 가슴 뜨겁게 지니고 자기들의 유일한 전투적 과업인 인민 경제 계획 과제의 실행과 배움의 길에서 더욱 높은 열성을 발휘할 것이다.

레닌에 대한 이야기

토요 로동

1919—1920년 경에 우리 나라 철도를 려행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관차 무덤》을 보았을 것이다. 망그러진 기관차들이 너머져 딩구는 이곳을 이렇게 《기관차 무덤》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 기관차들은 공민 전쟁 때에 포탄들에 맞아 망그러진 것들인데 지금은 마구 내던져 두어서 바퀴를 우로 솟군채 쓸쓸히 큰 무데기를 이루어 쌓여 있다.

참 간고한 시기였다. 어데를 가나 전쟁의 흔적이 보이였다. 강에 건너 놓았던 다리들은 파괴되고, 도시들에는 불타 버린 집들이 너저분하고 철로'길들에는 망그러진 기관차들이 나뒹굴었다.

쏘베트 나라는 모든 살림을 다시 고쳐 건설하여야 했다.

그래서 위대한 사업들이 시작되였다. 쏘베트 사람들은 쉬는 날마다 혹은 일하는 날에도 로동 시간만 끝나면 모두들 모여서 자기 나라를 돕기 위하여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군 했다.

이런 사업은 1919년 5월 10일에 모쓰크바 까잔 철도 로동자들이 맨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자진하여 일에 착수했는데 자기들 희망대로 기관차 무덤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기계의 성한 부분을 골라 내서는 석탄과 장작을 실은 기차에 함께 실어날으군 했다. 이런 사업이 맨 처음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였다. 그래서 쏘베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날들을《토요 로동일》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모쓰크바 까잔 철도 로동자들의 모범을 따라 다른 철도와 공장, 제조소들의 로동자들도 각각 토요 로동을 하게 되였다

그런데 1920년 5월 1일은 전 로씨야가 모두 다 토요 로동을 하기로 되여 있는 날이였다. 이 명절날에는 어데서나, 크레믈리 궁전에서부터 먼 씨비리의 어느 한 조그만 마을에 있는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로동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려 떠날 적에는 명절날 기분으로 악대를 동원하여 음악

을 울리며 나가군 했다.

이날 아침 여덟시에 크레믈리에서는 대포를 련달아 세방 쏘았다. 로동자, 사무원들과 크레믈리의 군관 학교 학생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전투 태세로 일을 하기 위하여 모두가 한줄로 렬을 섰을 때 크레믈리 위수 사령관이

《레닌 동지가 토요 로동에 참가하시려 나오십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울라지미르 일리이츠가 대렬 앞으로 재빨리 걸어나오셨다.

군관 학교 교장 선생은 레닌을 우리의 웃어른으로서 대렬의 맨 앞줄 오른 쪽에 서시도록 권했다. 그러자 레닌은 곧 교장 선생이 가리킨 자리에 가서시였다. 구령이 내렸다.

《대렬 정돈!》

그 다음에는 련이여

《우로 돌아 앞으로 갓!》

하는 구령이 내렸다.

모두들 음악에 발을 맞추어 군대식으로 걸어서 나무 통들과 돌맹이들과 널판자들과 쓰레기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크레믈리의 뒤'마당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는 망그러진 수레들도 나딩굴었고 또 땅 우에는 포탄에 패운 웅뎅이들이 우묵우묵 나 있었다. 이것은 10월 혁명 때에 백파군과 전투를 한 흔적이 아직 그냥 남아 있는 것이다.

하루 종일토록 온 크레믈리 광장을 잘 정돈하고 깨끗이 쓸어야 했다.

맨 처음에는 나무통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대개 통나무들은 둘이서 맞들어 나르거나 더 큰 통나무라면 넷이서 메 날려야 했다. 레닌은 한 군인과 짝을 무어 일하시였다. 그 군인은 늘 나무통의 가는 쪽은 레닌에게 드리고 자기는 굵고 더 무거운 쪽을 들려고 했다. 그러나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는 인차 이것을 알아차리고 먼저 가서 나무통을 들려고 하시였다.

그럴라치면 군인은

《저는 스물 여덟살이구 수령께서는 쉰살이 아니십니까》

하고 말했다.

레닌은 무거운 쪽을 자기 어깨에 올려 놓고 웃으시면서《글쎄 자네가 나하구 승갱이하진 말게. 내가 비록 나이는 더 많았어두》

하고 말씀하시였다.

광장에서 통나무들을 죄다 들어낸 다음에는 큰 참나무 통들을 메여내기 시작했다. 이 참나무통은 세 개의 장'대 우에 올려 놓고 여섯 사람이 메 날려야만 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일에 익숙한 로동자들도 이것을 메나를 적에는 얼굴에 구슬같은 땀'방울이 흐르군 했다.

이번에는 군관 학교 학생 세명과 로동자 두명이 울라지미르 일리이츠와 함께 일했다.

한 로동자가 레닌을 바라보고 있다가 드디여 이렇게 이야기했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당신이 안하셔도 우리들끼리 어련히 다 할라구요. 수령께서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자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는

《지금 내게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오》

하고 대답하시였다.

해가 쨍쨍 내려 쪼이고 또 자기 옆에서 레닌 동지가 함께 일하고 계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참 오늘이야말로 즐거운 명절날이라고 생각했다.

모두들 일에 생수가 났으며 롱담과 웃음 소리와 노래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 왔다. 모두들 레닌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윽고 모든 사람들은 일에 지쳐서 담배를 한대씩 피우며 앉아 쉬기로 했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는 담배를 안피우셨으며 또 쉬려고도 하시지 않았다. 레닌은 시계를 꺼내 보시고는 남아 있는 참나무 통과 돌무지를 바라보시군 했다. 그러시다가 드디여 쉬고 있는 동지들 한데로 와서 앉으시였다. 누군가가 그이에게 담배를 권했다. 그러자 레닌은 담배를 거절하시면서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었으나 인차 그때부터 끊으셨다고 이야기하시였다. 모두들 울라지미르 일리이츠와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기뻤다. 그러나 레닌은 다시 시계를 꺼내 보시더니 어디론가 분주히 가시는 것이였다.

잠시 동안 쉬고 나서는 다시 들'것으로 돌맹이들과 쓰레기를 나르기 시작했다.

레닌은 서둘으면서 일을 좀 더 빨리 하시려고 했다. 그러나 토요 로동이 끝나기 몇분 전에 그이는 다른데로 가보시여야만 했다. 그것은 오늘 칼•맑스의 동상을 세우는 건설장에서 그이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럭 저럭 광장의 일'감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토요 로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남은 일을 재빨리 끝내느라고 고단하기는 했으나 매우 기분들이 좋아서 흩어졌다. 오늘 그들은 정말 중요한 일들을 했다. 그런데 다음 토요 로동에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것이다. 그리하여 넓고 넓은 쏘베트 나라의 그 어디에서도 새로운 수백만 인민들이 일떠설 것이다.

과수원건설과 청년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와 인민 생활 향상에서 과수원 건설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그것은 우리의 인민 경제의 물질적 부를 증대시킬 것이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우리의 절실한 념원인 평화적 조국 통일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담보로 된다.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것은 조선 로동당의 마음이며 생활이다.

금번 조선 로동당은 과수원 10만 정보 건설에 대한 것을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호소하였다. 이것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생활에서 부터 출발한 정당한 정책이다.

조선 로동당의 정책의 인민성과 정당성을 자기의 실지 생활 속에서 직접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에 적극 호응해 나선 것은 우연하지 않다. 특히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건설되는 과수원 건설은 이제로부터 5년이나 10년 후에 열매를 맺을, 말하자면 멀지 않은 미래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청년들은 오늘 보다도 더 래일에 속한다. 따라서 미래는 청년들의 것이고 지금 건설되는 과수원에서 과실을 딸 사람은 우리 전체 인민들과 함께 청년들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0만 정보 과수원 건설에 대한 당의 현명한 대책이 나오자 황해 북도 은률군 청년들은 이를 전국 청년들에게 호소했고 이와 같은 애국적 호소는 전국 각지 청년들의 불같은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평원군 삼봉 농업 협동 조합 청년들이 무림 목지 100 정보를 과수원으로 개간한 것을 비롯하여 북청 군내 청년들의 농업 협동 조합 마다에 《청년 과수원》건설 투쟁, 어랑군 내 청년들의 2,000 정보 과수원 건설 투쟁 등 각지에서 힘차게 벌려지고 있다.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10만 정보의 과수원에서는 해마다 100만 톤 이상에 달하는 과실을 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민 경제의 물질적 부는 더욱 더 증대될 것이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평화적 조국 통일은 더욱 앞당겨 질 것이다.

과실은 맛 좋고 영양가가 높아 인민들의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경공업의 원료로 되여 각종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만들어 낸다. 과수업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으므로 인민 생활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과수업은 외화 획득의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사과 한톤은 좁쌀3톤에 해당하며 면직물은 642메터에 해당한다. 만약 100만 톤의 과실을 몽땅 외국에 수출한다면 좁쌀은 300만톤, 면직물은 6억 4,200만메터 자전차는 6백만대, 석탄은 2천 7백만톤, 고급 동내의는 7천만벌, 사탕은 2백만톤과 각각 바꿀 수 있다. 이것을 남 북 조선 3,000만 인구 매 개인에게 배당한다면 좁쌀은 100 키로, 면직물은 21.4 메터, 자전차는 매 5명에 한대, 고급 동내의는 2.3벌, 사탕은 67 키로, 석탄은 900 키로가 차례진다.

이 수'자는 머리에서 짜낸 가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과수 재배에 아주 알맞으며 맛 좋고 산출량이 많기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

금년에 국영 함흥 과수 농장에서는 정당 평균 17 톤을, 북청 과수 농장에서는 정당 평균 13 톤을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나라 과수원에서는 매년 정당 10 톤 이상의 과실을 수확하고 있는데 최소 한도로 정당 10톤씩 수확한다 쳐도 10만 정보이면 100만톤의 과실은 능히 수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어데를 가던지 산과 마을 마다에, 집과 길 마다에 맛 좋고 보기 좋은 화려한 과수원으로 덮일 전망은 확고하다.

우리에게 10만 정보의 과수원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있다.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의 결과 우리 나라에는 과수원 건설에 필요한 화학 비료도, 농기구도, 농약도 있으며 개간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농기계 임경소도 있다. 또 다년간의 과수 재배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도 있으며 과수원 건설에 적응한 야산들도 우리 나라 처처에 있다.

문제는 우리의 노력에 있다.

그러면 10만 정보 과수원 건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종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자 채취는 품이 많이 드는 것이므로 군중적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함북도 영안군 청년들은 매개 청년이 복숭아씨 200알, 돌배 씨 200알, 배지 씨 6,000알 씩 책임지고 수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미숙한 것을 따지 말 것과 탐벌하거나 가지를 꺾지 말 것이다.

다음으로 과수 적지 조사 사업와 개간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과수 적지가 얼마나 되는가? 제1차 5개년 기간에 얼마나 건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밀히 조사하여 년차별 개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금년도 내로 20% 이상 개간할 것을 예견해야 한다. 경사지를 리용하는 과수원에서는 토사 류실 방지 대책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과수 종류와 품종 배치에 류의하여야 하며 인민 경제적 요구와 지방적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마을과 집 주변, 도로변에도 빠짐 없이 심어야 한다. 공화국 북반부의 매개 농호 마다에서 과수 다섯대를 심는다면 그 면적은 과수원 2만5천 정보에 해당한 것으로 된다. 매개 청년들은 누구나 없이 5—10대의 과수를 집 주위에 의무적으로 심으며 학교에서는 원예 실습지, 학교 과수원을 건설하며 직장 주위, 공원 등에 많은 과수를 심어야 한다.

이 방대한 과수원 건설은 기술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년들은 과수 시험장, 국영 과수 농장 및 과수 재배에 경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견학, 경험 교환회 등을 조직하여 배우며 지식 청년들을 중심으로 과학 기술 연구 크루쇼크를 조직하여 과수 재배에 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것이다.

물론 10만 정보 과수원 건설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전쟁 후 재'더미만 남았던 빈터에서 오늘의 행복을 창조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래운 영웅 조선의 청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산과 마을을 화려한 과수원으로 덮자! 그리하여 당 앞에 굳게 뭉친 청년의 힘을 자랑하자!

김 영 민

민청 초급 학습반 학습 제목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전호에서 계속)

2. 우리 인민의 찬란한 문화 유산과 영광스러운 애국 전통

이 장의 내용 학습에 드러가기 전에 매개 학습자들은 우리 나라의 력사 시기 구분을 리해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문화 전통과 애국 전통을 력사 시대 별로 학습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진행된 시(구역), 군 민청 강습회들에서는 우리 나라의 력사 개관을 많은 시간에 걸쳐 비교적 상세하게 취급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초급 학습반들에서도 력사 개관 학습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적당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하면 본 내용 학습 시간을 단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반에서는 직관물로서 《조선 력사 년대표》를 리용하는 방법으로 참고 자료에 제시된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우리 나라의 력사 시대 구분을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의 조상은 어떤 종족들이며 그들은 원시 시대에 어데서 살았으며 첫 계급 국가들이 어느 시기에 어데서 발생하였는가 (3국의 형성) 신라에 의한 3국의 통일, 봉건 고려 국가, 봉건 조선 국가, 일제에 의한 조선 강점 시기, 8. 15 해방 등 순서로 대략적인 력사 시대를 파악하게 할것이다.

(1)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찬란한 과학 문화 유산

이 장에서 학습할 중심 내용은 매 력사 사대 별로 해당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짧은 학습 시간에 우리의 문화 유산을 다 학습할 수는 없다. 때문에 력사적 시대 별로 대표적인 것에 대하여 학습한 후에는 참고 서적들을 읽는 방법으로 자습을 계속 진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국 시대의 문화——고구려 고분에 나타난 건축술과 회화의 높은 발전, 백제에서의 조형 예술의 발전과 일본 고대 문화에 끼친 그의 영향, 신라 인민에 의한 《리두식 표기법》의 창안과 건축술의 발전, 경주 금관에 표현된 공예술의 우수성, 천문학의 발전 (첨성대).

통일 신라 시대의 문화——조형 예술에서 대표적인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및 봉덕사의 종, 문학 예술에서의 신라의 《향가》와 많은 전설과 설화들, 유명한 문학가로서의 최 치원, 혜초, 회화 (솔거), 음악 (백 결 선생)의 발전.

고려 시대의 문화——고려 문화에서 대표적인 고려 자기, 인쇄술의 발전과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의 발명, 천문학의 발전 (태양 흑점의 관측), 최 무선에 의한 화약의 발명, 고려 문학을 대표하는 《고려 가요》의 풍부한 인민성, 《3국 사기》와 《3국 유사》의 편찬.

15세기의 문화——리조 시대에서 특히 15세기의 문화를 한 조목으로 지적한 것은 우리 나라 력사상에서 15세가가 가장 찬란한 문화 발전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15세기에 창조된 대표적 문화 유산은 우리 국문의 창제이다. (국문의 과학성과 인민성) 천문학의 발전과 측우기를 비롯한 천문 관측 기구들의 발명, 조선술의 발전, 건축과 백자의 발전, 편찬 사업의 발전 (력사, 지리, 병서 등)

실학의 개화와 문학 예술의 발전——실학이란 무엇이며 실학파 학자들이 우리 민족 문화 발전에 끼친 공헌은 무엇인가, 박 지원, 정 약용 등 실학자들의 사상, 김 정호의 《대동여지도》, 18세기의 문학 특히 소설의 발전, 김 득신, 김 홍도 등의 회화, 애국적 문화 계몽 운동에 의한 실학사상의 계승. (18세기의 소설들을 될수록 읽고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우리 인민이 창조한 찬란한 과학 문화 유산을 학습함으로서 우리들은 민족적 긍지감을 높일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인식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첫째로 력사적 창조자인 인민이야말로 사회의 물질적 부와 정신 문화의 창조자이며 사회 발전의 근본적 힘이다. 그러나 인민의 창조력은 인민이 정권의 주인이된 사회에서만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다.

둘째로 민족 문화는 민족의 자주 독립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그것은 과거 외래 침략자들에 의하여 특히 일제에 의하여 우리 민족 문화가 파괴 유린되였으며 오늘 남반부에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침략 정책과 반인민적 매국 정책으로 민족 문화가 파괴되고 있는데서 증명되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민족 문화의 찬란한 개화 발전이 증명하여주고 있다.

세째로 민족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 시키는 것은 청년들의 숭고한 민족적 임무이다. 그를 위하여 청년들은 우리 민족 문화 전통에 대하여 더 깊이 학습하며 그를 애호 보관하는 애국적 운동에 모범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2)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애국 전통

ㄱ.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이 절을 학습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은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반 침략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영웅적으로 싸워 승리를 쟁취하였는가, 어느 계급이 반 침략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가, 력사상의 탁월한 명장들이 위훈을 세울 수 있은 것은 무엇 때문이였는가를 깊이 리해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ㄴ. 봉건 통치자들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 절에서는 봉건 지배 계급이 근로 인민들을 어떻게 가혹하게 억압 착취하였으며 봉건 통치하에서 우리 인민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였는가, 봉건 지배 계급을 반대하여 근로 인민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봉건 통치자들을 반대하는 농민 투쟁은 어떤 의의와 교훈을 주는가를 리해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3. 우리 나라는 인민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 장에서 학습할 중심 내용은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과 그의 우월성이며 이 제

도를 고수하며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청년들의 구체적 과업이다.

이 장을 학습함에 있어서 강사나 학습자들이 꼭 연구하여야할 문헌은 김 일성 동지의 연설 《현 계단에 있어서 지방 정권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과 《문덕 선거구 선거자들 앞에서 한 연설》 그리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이다.

(1) 우리 나라에 어떻게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되였는가

이 절에서는 첫째로 해방 전에 우리 인민이 인민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였으며 둘째로 해방 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 즉 인민 정권의 수립과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이 어떻게 완수되였는가를 학습한다.

이 절의 학습에서 깊이 리해하여야 할 문제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수립이 가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승리하였으며 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령도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의 력사적 의의를 철저히 학습할 것이다.

(2).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제도

ㄱ. 인민 민주주의 독재——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제도의 계급적 본질을 리해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란 무엇이며 그의 기능이 각각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를 위하여 이 절에서는 모든 국가가 지배 계급의 독재 수단이라는 것, 부르조아 독재와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어떤 목적과 특징을 가지는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인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은 왜 필요한가를 학습한다.

이 절을 학습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은 오늘 국제 반동들이 떠벌리고 있는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허위성과 반동성, 그리고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원쑤들의 비방과 중상이 전혀 무근거하며 우리는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ㄴ. 우리의 정권은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이 절을 일관하여 학습하여야할 중심 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주권은 완전히 인민에게 있으며 인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습을 통하여 이것을 충분히 리해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민 정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되였으며 인민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한 정권,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 력량을 집결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 립각한 정권, 직접 간접으로 인민의 적극적 참가 밑에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며 인민 앞에 책임지는 정권,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와 집체적 지도 원칙에 의하여 활동하는 정권)

② 인민 정권의 사명과 기능은 무엇인가

(사명—조선 로동당이 내세운 임무의 집행자. 기능—대내 대외적 기능, 경제 조직자적 기능, 문화 교양자적 기능)

③ 공화국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이 절에서는 공민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학습함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와는 달리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호상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는 것을 깊이 리해하도록 학습하여야 한다.

④ 우리 나라의 국가 기관

이 절에서는 우리 나라에는 어떤 국가 기관들이 있으며 그는 어떻게 구성 되며 그의 기본 임무는 무엇인가를 주권 기관과 집행 기관별로 학습한다.

(3)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적 사회 제도

ㄱ. 우리 나라의 세가지 경제 형태—여기서는 첫째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 소상품 경제 형태,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가 각각 어떤 경제 형태이며 둘째로 매개 경제 형태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째로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각 경제 형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학습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인민 경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며 우리 조국의 경제적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ㄴ. 우리 사회의 계급들——우리 사회의 각 계급들과 그의 처지 그리고 그에 대한 로동당의 정책. 로동 계급은 우리 나라에서 령도적 계급이며 로농 동맹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 발전과 우리 혁명 승리의 기초이다.

ㄷ.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 경제 운영—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심 내용을 리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 나라에서 경제는 인민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 문화적 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그 실현의 수단은 높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을 부단히 게선 장성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 나라에서 경제는 계획적으로 운영된다.

이상과 같은 경제 운영이 가능한 것은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지배적이며 인민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절의 학습에 있어서 강조하여야 할 것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조선 로동당의 경제 정책의 정확성이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성과에서 명확히 실증되였다는 것을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심오하게 학습하며 동시에 최 창익, 박 창옥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의 죄악을 철저히 폭로할 것이다.

(4)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이다.

이 절은 본 학습 제목의 총 결론으로 된다. 이 절의 중심 내용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이며 오직 이 제도하에서만 우리 청년들의 행복한 생활과 광명한 장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학습하는데 있다.

동시에 청년들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국내외의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며 그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체 력량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을 깊이 리해시켜야 한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과업은 참고 자료에 제시된 임무를 당면한 청년들의 과업과 잘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학습케 할것이다.

현지보도



만발하라! 청년과수원



북청소묘(小描)

우리와 동행중인 군 민청 위원장은 불쑥 창밖으로 한손을 내밀어 황패한 무덤들로 꽉 덮인 낮윽한 봉우리를 가리키면서 말을 하였다. 《저 무덤들이 언제 생긴 무덤들인지 아십니까 왜정 때 그 언제인가 심한 가물이 들었을 때 굶어죽은 이 고장 사람들의 묘지요……》

그 봉우리는 휙 지나가버리고 말았다.

신북청에서 북청까지는 30리다. 뻐스에 앉아 차창을 들어 올린 우리의 눈 앞엔 올망졸망한 봉우리들에 포근히 안겨 길게 누워 있는 풍요한 북청벌이 펼쳐졌다. 무릇 논빼미 마다 누런 이불을 쓰고 서느러운 가을 바람에 설레인다. 그리고 마침 석양 한창때라 봉우리마다에 붉게 타오르는 능금밭은 어느 천재적 화가의 섬세한 필치라 할지라도 그려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자태를 빛내이고 있다.

북청을 처음찾은 우리는 저가끔 자기들의 고향을 생각하였다. 한동무는 나무릿벌 태생이고 딴 동무는 금강산 태생이며 세번째 동무는 강계가 고향이다. 우리나라치고 금수강산 아닌데가 어디며 살기 나쁜데가 어디랴? 허나 우리의 마음은 저마다의 고향을 아끼며 자랑하는 긍지와 함께 이러한 같은 느낌의 한 줄기로 합치였으니 그것은 《살기 좋구나, 북청, 북청이여!》 하는 생각이였다.

실로 가을의 북청은 황금 나락의 바다이며 능금의 바다이다. 이런 살진 대지의 한복판을 달리는 우리들이 굶어 죽은 우리의 선조들을 머리 속에 방불히 그려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리성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착잡된 감정을 정리하고 일제에 대한 활화산 같은 증오의 불길로하여 치를 떨게 한다. 한편 공화국 북반부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그런것처럼 북청에서도 농민들의 비극을 영원히 몰아낸 대해보다 넓고 큰 우리당과 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게한다.

해방 후 우리 당은 밭갈이 하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었다. 해방 후 우리당은 그들에게 무르익은 과수원을 주었다. 우리 당은 전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도 얼마나 뜨거운 손길로 그들의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었던가!

고마워라 당이여! 하는 목소리는 지금 그 어느때 보다도 더 강하게 북청 사람들의 심장에서 울려 나오고 있다.

당은 그들에게 인민 경제 발전과 그들 스스로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알곡 증산과 함께 과수 농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가르쳤다. 제1차 5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도상에서의 외화 획득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과가 가지는 의의도 북청 사람들은 잘 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과수 농업 발전에 대한 당의 가르침 속에서 자기들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이제 오래지 않아 이렇게 될 것이다. 즉 군적으로 한해동안 농사지은 사과를 천으로 바꾼다면 군내 인구 1인당 900여메터씩 돌아가게—.

눈내리기 전에

북청읍에 들어서는 사람마다 읍을 둘러싼, 가깝고 먼 산산에서 들려오는 떠들석한 소리를 들을 것이다. 북청 청년들이 파수지 개간에 나선지도 여나문날이 되였다. 그들은 10만 정보 과수원 건설에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선참 일어선 은률 청년들에 뒤따라 자기들의 힘으로 1,700정보의 새 과수원을 만들 것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우리들이 찾은 오평 농업 협동조합 개간지는 조합 청년들의 결싼 로동, 유쾌한 환담, 랑만적인 노래로써 들끓는다. 리'적으로 파수원 개간을 위한 8개의 청년 돌격대가 조직되여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무리의 총각패들이 고깽이를 휘두르고 저기에선 처녀들이 수건을 두른 머리를 자주 들었다 놓으면서 풀베기에 여념이 없다. 그들은 한걸음 한걸음 풀을 베여 나가면서 산을 에도는데 그들이 지난 뒤로는 넓고 잔디로 덮인듯한 푸른 비탈길이 쭉쭉 뻗어 나간다. 그러자 총각패들은 마치 처녀들을 좇아가서 그들의 머리 수건을 벗기려고나 하는것처럼 즐거운 기세로 푸른 비탈길을 일쿠면서 전진한다.

《이게 바로 계단식 개간법이란 겁니다. 산의 경사가 적어도 25도 이상은 되기 때문에 여런 방법으로 개

잔치 않고서는 우리의 개간 계획을 빨리 끝낼 수 없지요》.

우리는 은정스워러 뵈는 조합 민청 위원장 동무를 위시하여 몇몇 민청 열성 자들과 나란히 밭을 파고 늙은 소나무 그루 밑에 앉았다. 눈아래로는 아담한 조합 부락이 떠오르고 그 밑 논판에선 후여!하고 새를 모는 조합 할머니들의 흰 모습이 알른거린다.

《그런데 참 의견이 있지비, 1작업반에서 우리를 도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관골이 유별나게 모난 한 청년이 이렇게 투박한 어조로 말을 던지려다가 민청 위원장이

《동무 뭘 자꾸 그러우!》

하는 바람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는 이번엔 더 투박한 어조로

《사실이 그렇지비 우리도…》

하고 왕방울 눈에 수집은 웃음을 담는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청 위원장이 타일르는 바람에 말을 재촉하고 그대신 써래기 담배를 말아 부치는 것이였다.



《동무의 생각은 글렀소. 동무네 작업반엔 몸이 아픈 동무가 있지않소. 그래서 작업성적이 떠러지길래 2작업반이 도와주잔게네 왜 거부하오?》

《위원장두 참 딱하당이. 우린 우리의 힘으로도 능히 일할수있고 또 경쟁에서 이길수있소. 한데 도움을 받을 필요없지비》

《필요없다니?동무두 참…》민청위원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하, 하 웃으면서 입을 싸쥐고 말을 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도움을 주겠다는 건 증산경쟁에서 아름다운 사상의 표현이요. 그걸 반대하는건 낡은 보수성의 표현이구…》

우리는 이들이 허탈하게 주고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뜨거웠다. 청년의 혈기로선 얼굴이 까무잡잡한 동무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작업반과의 경쟁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가슴에 불끓뛰는 정열로하여 그렇게 말했다고 본다. 우리는 그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당의 호소에 적극 응하려는 그들의 심정에서 우리 시대젊은이들의 영예와 긍지를 한량 없이 느끼였다.

《하여간 좋소, 도움을받겠소 우린 힘을 합해 눈내리기전에 우리의개간 계획을 끝내잖

이.》

《그렇소. 겨울이면 땅이 얼고 땅이 얼면 고깽이도 감히 땅을 이길수는 없소. 눈내리기 전에 우린 개간을 끝내야 하오. 이런 구호 밑에 우린 이미 개간 계획 68정보 중 80%를 끝낸게 아니요. 명년엔 거기에다 홍옥, 국광을 심을 수 있소!》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말 참견으로써 중동무이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도 말을 끊고 먼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잠자코 눈에 어글어글한 빛을 띄울뿐이였다. 아마도 무르익은 산산봉우리의 과원을 거닐면서 그때의 젊은 세대들에게 청년 과수원 건설의 력사를 이야기하는 행복한 자기들을 그림그려 보는 것이리라!

기술의 령 마루로!

부드러운 달빛어린 산야는 은가루를 뿌린듯 곱다. 정서적인 이런 밤이면 조합 청년들은 으례히 조합 선전실 앞마당으로 모인다. 그리하여 북청 지방에 독특한 《돈돌나리》에 맞춰 어깨춤도 가벼이 빙글 빙글 돌며 하루일의 피곤을 푼다. 그러나 이런 락천적인 가운데서도 이곳 젊은이들의 생활은 아주 규칙적이다. 한창 돌아가던 한 청년이 선전실 처마 밑에 매단 종을 울리자 젊은이들은 한시에 헤여진다. 그리고 편안한 자리를 택해서 저가끔 잠시 동안 숨을 돌리다가 다시 신호가 있으면 선전실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도 농촌 청년 학교 선생을 따라 선전실로 들어갔다. 그는 초중을 나온지 이태되는 젊은 조합원이다. 학교에서 그가 배운 일반 지식, 과학 지식이란 그렇게 넓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부단한 노력 끝에 지금은 벌써 동무들 앞에서 여러가지 과목들을 강의할 수 있는 어엿한 선생으로 되였던 것이다.

젊은 선생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해 왔는가고 묻는다. 숙제는 엊그제 배운 접목법에 대한 것이였다.

오늘 강의는 양묘법에 대해서 진행되였다. 우리는 선생의 강의를 서슴없이 베껴 쓰고 또 알아듣는 기미로 보아 이곳 젊은 조합원들의 과수 지식이 얕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두시간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은 헤여졌다. 종전엔 1주 3회 1일 3—4시간씩 수업하던 것을 새과수지 개간이 벌어지면서 시간을 줄였다는 것이다 .

《농촌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소리는 옛날 소리지요. 당이 농촌으로 지식 청년들을 보내준 후로 농촌 사정은 퍽 달라졌지요. 그들이 농업 지식 보급의 핵심이 되여 젊은 조합원들의 농업 지식을 부단히 높여 주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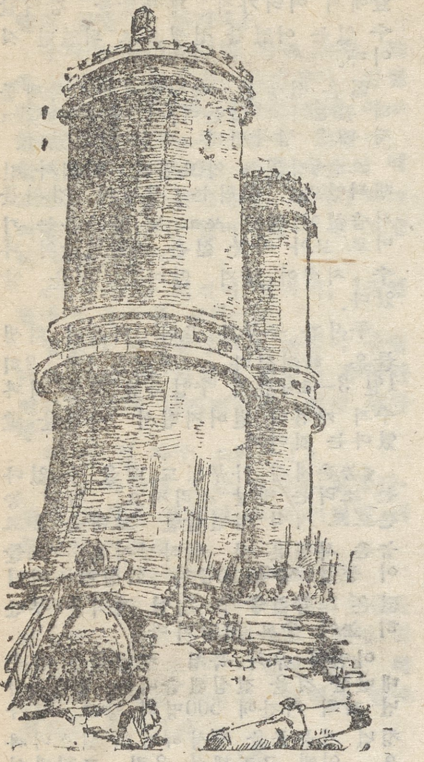
이번에 우리 북청 청년들은 아주 대담한 것을 결심했습니다.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500명의 양묘, 접목 청년 기능공을 양성하기로 했으니까요. 이에 근거해서 우리 조합에선 40여명의 청년 기능공을 길러낼 작정입니다.

1961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주십시요. 그러면 모든게 인정될 겁니다.》 이것은 민청 위원장의 말이였다.

우리는 민청 위원장네집 웃방에서 하루'밤을 묵기로 하였다. 우리의 눈은 감기였으나 누구나 자는 사람은 없었다. 아랫 방에서 민청 위원장이 책을 뒤치락 거리는 소리가 오래 오래 울리면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배운 것을 딴 노트에 베껴 쓰면서 복습하고 있는 것이였다.

송 선 경

친선의 탑



흥남 비료 공장 질안 직장은 의로운 쏘련 인민들이 보내 준 10억 루블리의 무상 원조의 일부로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설되는 질안 공장이다.

건설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이곳 건설장에는 하늘을 떠이고 선 높은 탑들과 굴뚝들, 탑식 기중기들이 수풀처럼 느러섰다. 일손을 다구치는 로동자들의 웨침 소리, 미끼샤의 돌아가는 소리, 마치질 소리들은 창조의 기쁨을 노래하듯 공도의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들은 지금 전반적 공사를 10월 말까지 마치기 위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증산의 불꽃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이 질안 직장의 규모는 대단히 크다. 이것은 흥남 지구 5대 공장의 하나인 본궁 화학 공장보다 훨씬 그 규모가 크다. 그리고 공장은 쏘련의 선진 경험에 근거하여 가장 현대적인 설비를 가추게 된다. 실례로 이 거대한 공장은 일제 때 같으면 수천명 로동자들의 힘으로 움직여질 것이지만 앞으로는 불과 100명 내외의 로동자들이 운영하게 되며, 이 공장의 가장 큰 건물인 렵산화탑만 하여도 지난날 같으면 수 백명이서 조업할 것이지만 앞으론 불과 3—4명의 로동자들이 돌리게 된다.

여기서 나올 질안 비료는 그 원가가 매우 낮을 뿐더러 그의 질에 있어서도 다른 비료보다 훨씬 좋다. 그런데 이같이 좋은 비료가 이 공장이 금년내로 완성되면 명년부터는 해마다 136,000톤의 백옥같은 비료를 우리 나라 농촌들에 공급하게 된다.

여덟개의 공기 흡수탑이 스텐 철판의 위용을 한낮의 해'별에 번쩍거리면서 우뚝우뚝 솟아 있는 건설장의 중심부에서는 한무리의 로동자들이 라스링그 축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높은 탑 우에서 기름 투성이의 옷을 입고 그들의 작업을 도와 주고 있는 쏘련 기술자들의 정겨운 모습들도 보인다.

《이 탑들에선 지금 조 쏘 친선 브리가다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름다운 친선의 이야기들이 얽혀 있답니다. 이 탑을 세운 스텐 철판 자체가 머나먼 쏘련 인민들이 보내 준 것이지요》하고 이곳 건설 트레스트 민청 위원장 리 우일 동무는 말했다.

쏘련 기술자들은 이 탑의 조립 공사에 비단 기술적 방조만 준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항상 건설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침식을 함께 하면서 팔을 걷어 부치고 직접 일에 달라 붙군 하였다.

실례로 이곳 조 쏘 친선 브리가다원들은 쏘련 군대에 의한 의로운 해방의 명절인 금년 8·15 전으로 이 탑의 조립 공사를 끝마칠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직 용접 기술과 제관 기능이 어린 그들의 일은 뜻대로 빨리 되지는 않았다. 이 때 쏘련 기술자 쩬주라, 벨리, 일리쎄브, 제관 기능공 이완 표도로비츠 동무들은 회합을 가졌다.

《우리 매개인이 하루에 40메터씩만 철판 용접을 하여 주면 세 사람이면 매일 120메터씩 용접하여 조선 로동자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라고 벨리 기사가 말하자 《그렇소, 나도 이제부터 그들의 곡관(스텐 철판을 후리는 일)작업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와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완 표도로비츠도 이에 호응하여 나섰다.

약속은 곧 실천에 옮겨 졌다.

쩬주라, 벨리, 일리쎄브 동지들은 세 사람이서 하루에 120메터씩 20여일 간이나 계속 작업에 참가하여 연 2,400메터의 용접을 하여 주었다. 이완 표도로비츠 제관 기능공도 자기 나라의 선진 기술인 새 곡관법을 공사에 도입하는데 성공하여 불에 달구지 않고도 능히 스텐 철판을 후릴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쩨흐 내에 일반화함으로써 곡관 능률을 단꺼번에 600%로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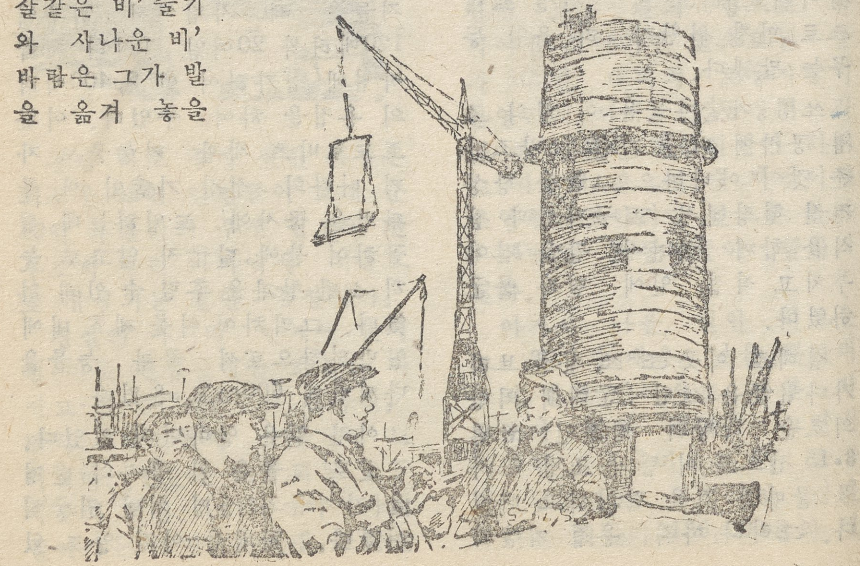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

실로 그들은 이 공사의 운명을 자기들의 생명 처럼 귀중히 여겼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

였다.

어느 비오는 날 밤이 였다. 비는 밤 한시 경부터 더욱 세차게 쏟아 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쏘련 기술자 이리셴꼬 동지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흡수탑의 일이 걱정되였던 것이다. 아직 탑안에 라스링그를 쌓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 텅비여 있는 이 흡수탑은 모진 바람만 불면 너머질 우려가 있었다. 만일 높이 20메터나 되는 이 탑이 너머지는 날이면 그야말로 10년 공부 나미 아미 타불로 되는 셈이다.

이리셴꼬 동무는 비옷을 뒤집어 쓰고 숙소를 나섰다. 숙소로 부터 건설장까지는 흥남시의 끝에서 끝까지 걸어야 했다. 창살같은 비'줄기와 사나운 비'바람은 그가 발을 옮겨 놓을 수 없게 그의 앞길을 막았다. 그러나 그는 이런것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그의 머리 속엔 비'바람에 몸부림칠 여덟개의 흡수탑이 얼른거릴 뿐이다. 벌써 현장에는 지배인과 수많은 로동자들이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밤 중에 조선 로동자들과 쏘련 기술자들의 흡수탑에 로쁘를 쳐 매는 긴장된 작업은 시작되였다. 쏘련 기술자들과 조선 로동자들은 그야말로 한 몸이되여 로쁘를 나르고 탑우에 기여 오르기도 했다. 작업은 훤이 동틀 무렵에야 끝났다. 비'바람은 여전히 휘몰아쳤다. 모두 솜처럼 피로에 지쳤다. 그러나 로쁘로 서로 든든히 련결된채 하늘 높이 머리를 쳐들고 서 있는 여덟개의 흡수탑을 쳐다보는 그들의 얼굴마다엔 안도와 기쁨의 기색이 어렸으며 두 나라 청춘들은 말없는 감격 속에 서로 붙안고 돌아갔다.



이와같은 아름다운 친선의 멜로디 속에 흡수탑 공사는 착착 진척되였다. 쏘련 기술자들의 성의 있는 방조는 이곳 로동자들을 무한히 고무하여 주었다.

그 중에서도 《돌격대 중의 돌격대》라고 불리우는 현 희택 청년 브리가다원들은 그야말로 가적을 쌓아 올렸다. 그들은 작업장에 식사도 날라다가 하였으며 심지어 잠까지 현장에서 잤다. 그리하여 한 희택, 박 사옥 동무들은 이 기간 실로 2만 5천여 메터의 철판을 용접하여 자기들의 계획을 3일간이나 앞당겼다. 그리고 이 브리가다의 박 충순 동무는 마사진 미국놈의 땅크철을 주어다가 스텐 철판 절단 로라를 창안제작하여 종전엔 손 정으로 15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되였다. 즉 스텐 철판 절단 작업에서 1,500%의 능률을 올리게 했던 것이다. 이 청년 브리가다원들은 초기에 흡수탑 1개 조립에 13일씩 걸리던 것을 나종엔 불과 3—4일 걸리게 하는 기적을 나타냈다. 불가리야에서의 최고 조립 기록이 1주일이였는데 이것은 실로 세계적인 기록이다.

이리하여 흡수탑 조립 공사는 그들이 맹세한대로 8월 14일에 완성하였었다.

이에 호응하여 206호 립산화탑에서 일하는 김 봉록 청년 직장 내 민청원들과 청년 건설자들의 기세도 더욱 앙양되였다. 그들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일을 보다 높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브리가다 경쟁을 체결하고 공사의 기한 전 완수를 위하여 한사람 같이 궐기하였다. 그들은 쏘련 기술자 안또노브, 딱치, 쩨렌죠브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고정 발판 대신에 이동식 휘틀을 적용함으로써 철근 콩크리트 타입 작업에서 하루 1메터 20—1메터 30의 성과를 올려 철근 콩크리트 타입 작업에서도 세계적인 기록을 쌓았다.

이리하여 높이가 지상 63,5메터에 달할 립산화탑은 지금 날을 따라 두터워 가는 조 쏘 량국 인민의 친선과 단결을 상징하듯 한자 두자 높아만 간다. 그리하여 거인 마냥 솟은 이 탑은 조 쏘 친선과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창조적 위훈을 후세에 길이 길이 전하리라!

한 희 만





인류의 심장에서

김 학 연

위대한말!

우리들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값높은 생활을 체험했다.

축전 생활이 나의 가슴 속 깊이에 새겨준 그 가지가지 정신적 충격들은 나의 생애에 인제나 동반될 기억으로 될것이다.

모쓰크바에서 나의 심장을 가장 크게 울린 말, 가장 격조 높이 나의 혈관을 끓게 한 말! 그것은 《미르 이 드루즈바》(평화와 친선)이다.

이 말은 우리들의 쏘련땅 체재 기간의 그 누구에게나 일반화된 인사였다. 물론 이 말을 우리들의 인사로 정하자는 그 누구의 제의도 없었으며 또 그 누구의 선포도 없었다.

엘바강 기슭에서 온 청년이나, 까슈밀에서 온 청년이나 저 먼 북미 남미 지구에서 온 청년이나 도꾜에서, 북경에서 온 청년이나 우리 조선 청년들이나 서로 길가에서, 광장에서, 공원에서 만나기만 하면 첫 말이 《미루 이 드루즈바》였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평화와 친선》, 이 말처럼 생활력 있는 말이 그 어데 있을 것 이며, 더욱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말처럼 힘있는 말이 그 어데 있겠는가?

모든 나라 청년들은 오직 하나의 심장으로서 이 말을 귀중히 하였으며 이 말의 생활화를 위하여 저마다의 피를 끓게 하였다.

그들은 파시즘의 피묻은 총칼에 희생된 누나와 딸과 어머니의 이름으로써,

그들은 식민주의의 악랄한 마수에 짓밟히고 있는 불행한 자기 조국과 고통받는 자기 인민의 이름으로써, 그들은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서 행복과 영예를 누리는 자기 생활의 이름으로써 《미루 이 드루즈바》를 말로서, 노래로서 아니 생활의 기'발로서 귀중히 하고 있다.

축전 개막식이 있은 날 저녁, 나는 레닌 경기장 앞 모쓰크바 강변을 걷고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서부 독일에서 온 한스 륜즈만 이란 청년을 만났다.

하늘의 뭇 성좌보다 더 황홀한 오색 불빛이 아름다운 강변에 조용히 잠겨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의 그림자도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다.

첫 인사를 《평화와 친선》이란 말로 나눈 우리는 곧 친숙해졌다.

그는 우리에게 물었다.

《남쪽 조선에서도 물론 대표가 왔지요?》

그러나 우리 일행 중의 한 사람이 쓸쓸하게 대답했다.

《아니오. 오지 못했소!》

그러자 그역시 몹시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한다. 그리면서 그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음성을 높여 말하는 것이였다.

《그 리유를 알만하오. 미국 식민주의자들의 작간이오. 이런 작간이 당신들의 생활에 아픔을 주고 있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소. 왜냐하면 그런 아픔을 우리도 당하고 있기 때문이오. 조선의 통일, 독일의 통일, 이는 가장 정당한 진실의 요구이며 절박한 생활의 요구이오. 그러나 이 정당성이 미제에 의해 짓밟히고 있소. 손을 잡읍시다. 우리 서부 독일 청년들은 그것을 바랍니다. 평화와 친선, 이 힘은 능히 우리의 숙망을, 우리 공동의 념원을 달성케 할것이오.

당신네 나라 남쪽 땅의 청년들의 생활을 상기하시오. 우리의 생활이 바로 그러하오. 식민주의, 아이젠하워 주의, 이 모두가 우리의 원쑤이오…》

우리는 이날 밤 그와 함께 오래도록 강변을 즐기면서 우리 공화국 청년들의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서의 위훈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의 실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과 그의 정당성, 그리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평화와 친선, 이 말은 위대한 말이요.

이 말을 간직하시오. 이 축전의 정신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다 아름다운 생활이 옵니다.》

이는 그와 헤여지면서 한 우리나라 예술인 한동무의 말이다.

그러자 그는 《위대한 말! 위대한 말! 그렇소, 당신은 과연 적절한 말로서 우리의 인사를 묘사했소》 하면서 우리 예술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모쓰크바에 감사를 드린다.

모쓰크바의 하늘은 가없이 푸르다.

흰구름만이 점점히 하늘에 널리인 좋은 날씨다.

옷차림과 말과 얼굴색들이 모다 각양한 각국 청년들의 떼로 경기장의 안과 밖은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친애감과 우정으로 충만되고 있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의 눈길도 친선적인 열정의 빛을 담고 있었다.

이제 잠시 후이면 권투 경기가 시작된다.

관람석 나의 자리 왼쪽에는 씨리아의 처녀 아프아프 마레크가 앉았고, 바른 쪽에는 뜌니스 대표인 몬 세프가 앉아 있다.

각국의 다양한 국기들이 청신한 하늘에 너울친다. 그중에서도 오각별 찬란한 우리의 남홍색 기'발이 가장 다정스레 나의 가슴에 안겨온다.

오래도록 그 기'발에서 시선을 떼이지 않고 있는 나의 어깨를 흔들면서 씨려아의 처녀 아프아프 마레크는 말했다.

《당신네 나라의 기'발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구 힘차 보입니다.

아주 약동적입니다》

나는 우리 국기에 그대로 시선을 던진 채로 나의 앞에 자리를 잡은 우리 통역원을 거쳐 그에게 말했다.

《우리 국기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는 결코 저 국기의 색채나 도해나 그 규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나는 알고 있소. 저 국기에는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전통과 신념, 그리고 창조와 약진이 표시되고 있소. 저기에는 오늘날 우리 인민을 령도하고 계시는 김 일성 수상을 선두로한 참다운 애국자들의 오랜 혁명 투쟁의 빛나는 전통이 아로새겨져 있소. 또 저기에는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기상과 정신력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애국심과 미래를 확신하는 신념이 담겨 있소. 우리 조선 청년들은 피로써 저 기'발을 수호하였으며 오늘날 저 기'발아래 뭉쳐서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위업에 자기의 정력을 보람차게 바치고 있소.》

무한한 동경과 기대의 뜻을 자기의 눈길에 담은 뮤니스의 몬세프가 우리의 담화에 가담했다.

《확실히 저 기'발은 당신네 나라의 국기인 동시에 아세아에서 전쟁을 제지한 평화 위훈의 상징으로 우리는 리해합니다.》

그렇다! 세계의 벗들 속에서 우리의 기'발은 우리의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자기의 고귀한 업적으로써, 자기의 위대한 리상으로써, 노래로 불리우고 있으며 찬양과 동경의 높이에 당당히 서 있다.

장중하게 경기장 안을 울리던 대 취주악이 멎자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었다.

54키로급 권투 경기다. 경기에는 우리 나라의 김 경범 선수와 씨리아 선수가 출전했다.

금번 권투 경기에는 17개국에서 온 55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다.

그중 우리 나라에서는 김 경범, 김 영호, 김 영환, 서 상한, 이 넷 이 참가 했다.

우리 선수들은 가장 청소했다. 모두가 국제 시합에는 처음이다.

지금 씨리아 선수와 마주 선 저 김 경범 선수도 물론 국제 시합에는 처음이며 국내에서의 선수 생활 역시 불과 2년밖에 아니된다.

그러나 지금 그와 마주 선 씨리아 선수는 그렇지 않다. 그는 씨리아의 민족 선수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미 5년동안 국제 권투 경기에 참가하였으며, 국제 경기 참가 56회 중 7회만 패전했을 뿐 49회의 승리를 획득한 그런 영예를 지니고 있다.

경기를 앞둔 나의 초조감이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겨야한다!)

(이길가?)

(이긴다…)

나는 몇번이고 이런 자문 자답을 했다.

나의 곁에 앉은 씨리아 처녀의 얼굴에도 사뭇 초조한 심정이 흐르고 있음을 나는 놓지지 않았다.

이윽고 경기는 시작되였다.

아프아프 따레크와 나는 함께 미리부터 손에 땀을 쥐였다.

우리는 서로 미소를 나누며 박수를 쳤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서로 어색한 분위기의 순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가끔 감촉도 했다.

맹렬한 교전 속에 시간이 흐른다.

우리 선수의 공격이 더욱 치렬해 졌다. 그의 강타는 관람석에 앉아 있는 우리의 심장을 막우 제압하는 것만 같다.

순간! 우리 선수의 흡사 피스톤과 같은 강력한 화이타 공격에 그만 씨리아 선수는 실신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씨리아 체육단 단장이 흰 천을 휘들으면서 경기의 중지를 제의했다. 이는 자기 선수의 패전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자 일시에 장내에는 각국 청년들의 〃까레이 김〃〃까레이 김〃하는 환성이 터졌다.

나의 곁의 씨리아 처녀도 박수를 계속 치면서 〃까레이 김〃을 웨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흥분을 제지하려 아니하며 직면한 순간의 감정 그대로를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제 침략자들을 물리친 싸움에서 단련된 그 용감성과 완강성을 나는 오늘 눈 앞에서 보았어요. 훌륭해요, 장해요…》

나는 이때 그에게 답변할 적당한 말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승리의 게양대 우 하늘 높이 공화국 기'발이 올으면서 장엄하게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으더니, 나는 끝내 두 눈을 적시고야 말았다.

조국이여! 너의 품에 사는 우리의 기쁨 그 어데 비길수 있으랴, 어머니 당이여! 그대 품에 자라는 조선 청년의 긍지를 세계에 자랑하노라.

《잠간 다녀 오겠어요.》

아프아프 마리크가 와락 이러서더니 가슴에 꽃다발을 조심스레 안고서 자기 나라 선수를 타승한 우리 나라 선수 앞으로 달려 나간다.

그가 우리 선수의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 주는 모습을 멀리에서 보면서 나는 모쓰크바가 안겨주는 새 충격을 누를 수가 없었다.

모쓰크바여! 감사를 드리노라! 전 세계의 젊은 심장들을 이렇듯 가까히 하여주는 모쓰크바! 평화를 위한 오직 하나의 리념의 길에서 우리 시대 청춘들의 심장에 친선의 정을 꽃피게하는 모쓰크바, 모쓰크바여! 우리의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받으라!

우리 나라 선수의 승리에 대한 환희로서 가득찬 나의 가슴 한쪽에서는 이러한 노래가 나의 귀를 쟁쟁히 울려 주고 있었다.

8월 7일 차이 하나에서

8월 7일 모쓰크바 시간으로 오전 10시 정각, 우리 조선 청년 대표단의 초청에 의하여 인도 청년 대표단 성원이 우리를 찾아 차이하나로 왔다. 농업 전람관 안에 있는 이 차이하나는 축전 기간 우리 조선 청년들의 외국 청년들과의 상봉 조직에 전적으로 복무했다.

얼핏 보아 남방 지대의 화려한 레스트랑을 방불케한다. 낮은 층층대를 올라서면 거기에 호수가 있다. 이 호수가에는 고무 나무며 야자수를 비롯한 남방 식물들이 자유롭게 해'발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둥근 호수 안에는 분수가 조석으로 무지개를 드리워주고 있다. 이 호수에서 층층대 네개를 가볍게 드디고 올라서면 거기에 또 호수가 있으며 그 둥근 호수 안에 또 분수가 있다. 이 쌍 호수의 쌍분수는 우리가 쏘련 영화《석화》에서 본 그런 웅대한 꽃포기의 형을 내뿜고 있다.

이 2계단 호수는 로씨야 건축 미술가와 원예가들의 훌륭한 재능을 우리들에게 력력히 말해 주고 있었다.

이 두계단으로 되여 있는 호수 두리에 높은 원주들이 총총히 서 있다.

이 원주들 아래 남방의 정서를 자아내는 천막이 적당하게 자리잡고 있다.

거기에 있는 식탁과 의자들은 자못 우리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준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2층으로 된 이 차이하나 옥창 높이 공화국 기'발이 축전 기간 끊임 없이 휘날리고 있었고 그 아래 스피카에서는《아리랑》이며《옹헤야》며《도라지 타령》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민족적 선률이 잠시를 쉬지 않고 울려 펴지고 있었다.

우리 대표단 단장 박 용국 동지의 첫 발언은 인도 청년 대표 단원들을 한없이 흥분 시켰으며 우리들 조선 청년에 대한 그들의 리해와 선망을 더 한층 강렬하게 하였다.

우리 대표단 단장 박 용국 동지는 첫째로 우리 시대 청춘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평화라는 것, 이 평화를 유지하며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가 서로 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이 친선 관계는 우리들을 서로 리해하게 하 며 화목하게하며 진실과 정당성의 길에 서 손을 잡게 한다는 것을 말했다. 둘 째로는 식민주의의 본질과 그 야수성을 말하면서, 이 식민주의의 마수가 지난 세기는 말고라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르러서도 그 얼마나 재난을 퍼뜨리고 있 으며 그 얼마나 많은 불행과 재난을 여 러 나라 청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이야기 하였다.

세째로는 조 인 두 나라 청년들의 친 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호상 대표단, 견학단을 교환할 것과 문화적 성과, 과학 예술의 성과, 학술 연구 사업 에서의 성과 등을 교환할 데 대하여 중요 하게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숭 고한 평화를 위하여 함께 튼튼히 손을 잡 을 것과 그러기 위하여 식민주의 침략 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굳게 정 의의 손을 잡을 것을 제의한 다음 오늘날 공화국 청년들의 행복한 생활과 그들의 보다 아름다운 미래와 전망에 대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새 락원이 건설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자세하게 연설하였다.

끝으로 박 용국 단장은 우리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들의 정당한 립장과 투쟁에 대하여 힘있게 강조하였다.

인도 청년들은 우리 단장의 연설을 우 렁찬 박수로써 여러번 중단시켰다. 연 설 마디마디에 공명의 뜻을 표시하던 그 들은 연설이 끝나자 모두 일제히 기립하 여 평화를 사랑하는 영웅적 조선 청년 만세를 소리 높이 웨쳤다.

이어서 인도 대표단 단장 팟'트 나이 크의 연설이 있었다.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는 조선 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 다. 나는 인도 청년들에게 친선의 정을 표시하여준 조선 청년 대표단 단장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인도가 독립된 이래 우리 인도 청년들은 한결 같이 식민주의와 전쟁 을 더욱 견결히 반대하여 싸워 왔습 니다…….

조선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력사가 기뻐하고 있으며 선량한 전 인류가 기뻐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미제국주의자들을 선두로한 련 합국 침략 세력을 자기 조국에서 물리치 고 조국의 영예와 생활의 권리를 수호한 당신들은 어김없이 훌룡한 영웅이며, 평 화 투사입니다. 당신들에 대한 인도 청 년들의 존경이 지극하다는 것을 꼭 인정 해 주기 바랍니다.

단장 동지의 우리에 대한 모든 제의는 우리의 생활에서 아주 가치 있는 발기라 고 인정하면서 그의 실현을 위하여 힘쓰 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조선 평화 만세! 인,조 친선 만세!》

단장들의 공식적인 연설이 이렇게 교 환된 뒤에 우리 대표단 단장은 붉은 잔 을 높이 치어 들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 청년들과 인도 청년들 간의 친선을 위하여, 인도 청년들 의 평화 위업에서의 성과를 위하여 이 잔 을 들것을 제의합니다》라고 하였다.

붉은 잔을 쫓는 친선의 음향이 차이하 나의 넓은 홀을 울렸다.

다음엔 인도 대표단 단장이 붉은 잔을 높이 처들면서

《영웅적 조선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 간 의 친선을 위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투 쟁에서의 공동의 승리를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라고 하였다.

또다시 기약의 잔을 쫓는 친선의 음향 이 홀을 울렸다.

다음부터 개별적인 친선의 환담이 시 작되였다.

나는 올해 나이 스믈 일곱이라는 윗똘 리와 전 인도 학생 회장인 이딸의 사이 에 앉았었다.

우선 나는 윗똘리에게 물었다.

《고향에 돌아가서 당신은 당신의 안해 에게 축전에 대한 인상의 첫말을 무엇이 라 하겠습니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주 흥미 있는 질문이군요 (그는 잠 시 생각에 잠기드니) 너와 동행하지 못 한 것이 후회된다. 이런 축전이 다음번 엔 인도에서 열리면 좋겠다. 축전은 평 화의 힘이 얼마나 강대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모쓰크바! 그는 평화의 선단을 걷고 있더라…… 나는 귀국 후 나의 안해 에게 이런 말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수첩에 싸인을 교환했다. 나는 그의 수첩에

《벗이여! 조선, 이 이름을 영원히 평 화를 사랑하는 인민의 나라로 부르시라. 차이하나에서의 우리들의 상봉을 오래도 록 잊지 말자!》라고 썼다.

그는 나의 수첩에

《영웅적 조선 청년과의 상봉, 그것은 나의 최대의 영예이다》라고 썼다.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서슴치 않고 고음으로 이렇게 말 했다.

《우리는 크게 말해서 한길을 걷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하나의 신념이 우리들의 심장에 함께 고 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네 단장 동지는 당신네 나라 인민들의 평화적 조 국 통일에 대한 의지를 아주 감동적으 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며 당연한 생활의 길입니다. 당신들이 승리할 때 까지 우리는 결코 가만히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감히 말합니다. 《미제를 타도하 자!》《미제를 타도하자!》이는 우리 인 도 청년들의 일치한 절규입니다.

우리는 이날의 오찬회까지 스피카에서 울려 나오는 《옹헤야》의 선률에 마추어 인도 남녀 청년들과 함께 넓은 홀에 원을 그으며 오래도록 춤을 추었다. 그들은 우 리의 경쾌한 장단과 아름다운 무용적 선 률에 현혹되였었다.

(모쓰크바 축전 참가 인상기 중에서)







레닌 공청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길

김 현 수

위대한 10월 혁명의 승리를 위한 영웅적 투쟁 속에서 공산당의 충실한 방조자인 공청의 싹이 텄다.

로씨야에서 프로레타리아 청년들의 첫 조직은 1917년 2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후에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발생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승리 후 청년들에겐 청소한 쏘베트 국가의 강화 및 국 내외의 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당을 적극 방조하기 위하여 분산된 청년 단체들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당과 조국의 부름을 받들고 로씨야 공청원들은 1918년 10월 29일 레닌 공산주의 청년 동맹을 창건 하였다.

공청은 쏘베트 국가의 어려운 공민 전쟁 시기에 탄생되였다.

공청은 탄생 첫날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9년간 당과 조국에 헌신하며 충직한 애국적 전통과 영광스러운 투쟁의 성과로 빛나고 있다.

청소한 쏘베트 국가에 대한 외래 제국주의 무장 간섭자들과 국내의 반혁명 분자들을 반대하는 공민 전쟁에서 공청은 당의 호소에 의하여 공청원들과 청년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조직 동원 하였다.

공청원들은 모두 외래 제국주의 무장 간섭을 반대하는 전선을 지원하였다. 30%를 전선에 동원하라는 제2차 공청 대회의 결정이 있은 후 우라지미르 현의 공청원들은 전원 전선에로 지원하여 나갔다. 저마다 전선으로 나갈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끄라스나야 쁘레스니 구역 공청원들은 제비를 뽑아 걸리는 사람이 후방을 지키게 하였다고 한다.

많은 구역 공청 위원회의 대문들에는 《구역 위원회는 페쇄함. 모두가 전선으로 갔음》이라는 격동적인 글이 씌여져 있었다.

공민 전쟁 시기의 공청원들의 영웅성에 관하여서는 쏘베트 청년들과 함께 전 세계 진보적 청년들이 사랑하고 읽는 장편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의 주인공 빠벨 꼴챠낀의 형상에서 력력히 볼수 있다.

어렵고 쓰라린 고난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청의 대렬은 1920년 10월까지 40만으로 확대되여 20배로 장성하였다.

당과 쏘베트 정부는 공청원들의 애국심과 영웅성을 높이 평가하여 1928년 붉은 군대 창건 10주년 기념일에 레닌 훈장을 공청에 수여하였다.

공민 전쟁의 상처를 가시며 제국주의자들의 포위 속에서 쏘베트 국가가 사회주의 건설을 단독으로 수행하던 어려운 시기에 공청은 당의 첫 방조자였으며 전투적 건설자였다.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부흥시키기 위한 생산 돌격 운동이 공청원들 속에서 발생하였다.

1926년 레닌그라드의 〃끄라쓰니•뜨레우 골니끄〃 꼼비나트에서 조직된 덧신 제작공들의 브리가다는 첫 공청 생산 돌격 브리가다였으며 그 애국적 운동은 곧 전국적으로 전파되였다.

1929년 쏘련 공산당이 제1차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하였을 때 훌륭한 창의적 사업의 첫 발기자들 가운데는 공청원들이 많았다.

불 충분한 자료에 의해도 제1차 5개년 계획 첫 시기에 35만의 공청원들이 로력 전선에 동원되였다.

구라파에서 제일 큰 드네쁘르 발전소 건설에서 로동자의 70

%는 청년들이였다. 공청의 이름을 띤 도시와 광산, 탄광들이 건설 되였다.

농업 집단화를 위한 투쟁에서도 공청은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공청원들은 솔선 꼴호즈에 가입하였으며 수천명의 도시 공청원들이 뜨락또르 운전수로, 꼴호즈 계산원으로 진출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공청원들이 논 로력적 성과를 쏘베트 조국은 높이 평가하였는바 쏘베트 정부는 1931년에 로력 적기 훈장을 공청에 수여하였다.

조국과 당이 기대하는 신임에 보답하기 위한 공청원들의 로력 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1935년 돈바쓰에서 발생한 쓰따하노브 운동은 사회주의 경쟁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는 바 공청원들은 새로운 발기의 초소에 서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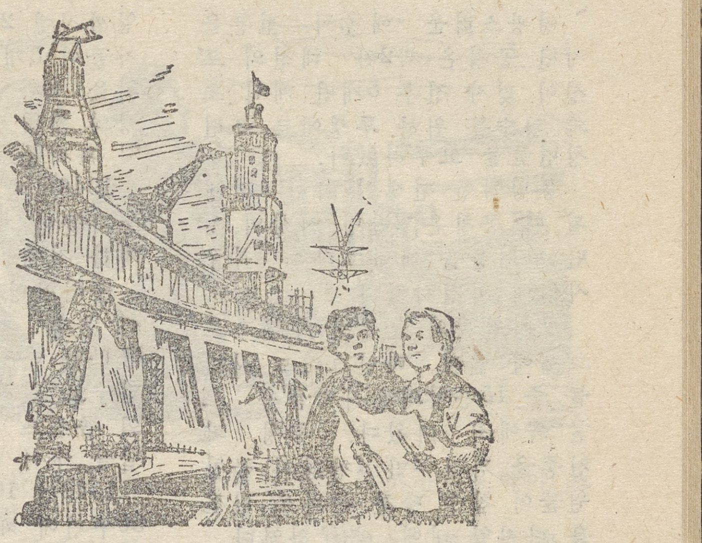
1941년 6월 22일 히트러 도당의 배신적 공격으로 사회주의 조국에 위험이 떠돌 때 공청원들은 《모든 것을 전선을 위하여!》 바치었다.

전쟁의 첫 주일에만 하여도 모쓰크바 공청원들이 26만명이나 지원병으로 참전하였다.

첫 국경선 방어 전투로 부터 백림 공격전에 이르기 까지 수천키로의 전선에는 공청원들이 참가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쎄와쓰또뽈리의 전투에서 한 지점의 젊은 수비병들은 마지막 피의 한방울까지 다하여 근 3일간이나 진지를 고수하였다.





공청원들은 결코 죽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니꼴라이 까스쩰로는 공중전에서 적 포탄에 의하여 불붙는 자기의 비행기를 적 휘발유 공급차와 땅크 부대 속으로 몰아 원쑤를 격멸하였다.

체르누시까 촌락 공격 전투시에 부대의 전진을 저지 당하자 근위병 공청원인 마뜨로쏘브는 자기의 몸으로써 적 화구를 막아 전우들의 진격을 보장하였다.

적 후방에서 싸운 쏘베트의 젊은 애국자들도 위대한 조국전쟁사에 찬연히 빛나고 있다.

탄광촌 크라스노돈의 올레그 꼬세보이를 비롯한 많은 "청년 근위 대원"들이나 쏘야의 영웅성은 전 세계 청년들과 인민들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있다.

혁명적 공청원들은 지하에서 최후 승리를 위한 불굴의 투쟁을 조직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만 해도 200개 이상의 공청 지하 구역 위원회들이 활동하였으며 백로씨야에서 싸운 빨찌산들 중 15만명이 청년들이였으며 그중 5만 3천명은 공청원들이였다.

전쟁 기간 5만명 이상의 남녀 청년들이 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았으며 12명의 처녀를 포함한 99명의 젊은 빨찌산들이 쏘련 영웅 칭호를 받았다.

1945년 6월 14일 쏘련 최고 쏘베트는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의 탁월한 공훈과 쏘베트 청년들을 애국적 헌신성으로 교양한 공적에 대하여 공청에 레닌 훈장을 수여하였다.

영광스러운 애국적 전통을 지닌 공청은 제2차 대전의 포성이 멎자 전후 5개년 계획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로 쏘련 청년들을 고무하였다.

동방에선 전쟁이 아직 진행될 때 공청은 2만명 이상의 청년 남녀들을 레닌그라드 복구 사업에 파견하였다.

공청원들의 눈부신 투쟁으로 그때에 벌써 레닌그라드 시민들 중 15만명의 사람들은 토굴 속에서 나왔다. 공청 파견증을 가진 4만 4천명의 공청원들이 침수 당한 돈바쓰 탄전을 단시일 내에 복구하였다.

복구 사업 뿐만 아니라 증산의 불길 속에서 공청원들의 위훈은 더욱 빛났다.

벌써 1947년 10월 혁명 기념일까지엔 20만명의 젊은 로동자들이 5개년 계획의 년간 계획을 초과 완수했으며 2만명이상의 청년 남녀들이 5개년 계획 과제를 완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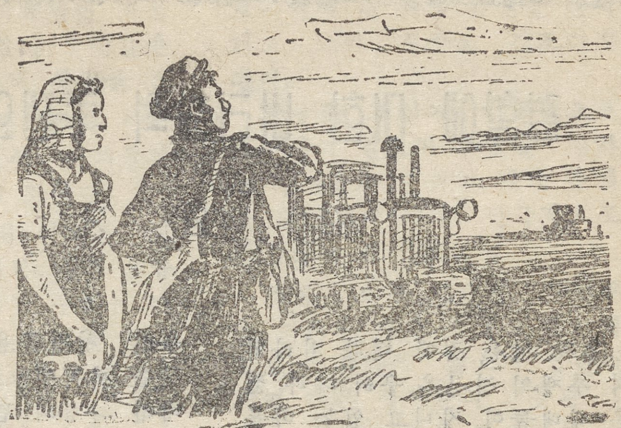
1948년엔 75만명의 젊은 로동자들이 제4차 5개년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하였다.

수십만명의 남녀 꼴호즈원들이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해 꼼바인 운전수로, 뜨락또르 운전수로 일하였으며 6천명 이상의 쏩호즈 청년들이 훈장과 메달을 수여 받았다.

1948년 10월 29일 공청 창건 30주년에 제하여 쏘베트 정부는 사회주의 건설과 쏘베트 청년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여한 공청의 공적을 평가하여 레닌 훈장을 수여하였다.



공청은 항상 당과 조국과 인민의 아픔과 고난을 해결하는 곳에 자기의 전투적 력량을 돌렸으며 인내성 있고 락천적인 쏘베트 청년들을 길러내였다. 따라서 당의 부름엔 쏘베트 청년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항상 뛰여 들었으며 맡은바 임무에 항상 충실하였다.



제5차 5개년 계획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처녀지와 황무지 개간에만 동원된 젊은 개척자들의 수는 35만명에 달하였다.

모쓰크바 공청원들의 호소에 호응한 젊은 공산주의 개척자들은 멀리 고향을 떠나 3천 5백 90만 헥타의 처녀지와 황무지를 개간 함으로써 년 10억 뿌드 이상의 곡물을 국가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공청원들의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은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의 호소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도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새로운 공업 기지를 씨비리에 창설할데 대한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1956년에만 하여도 20만의 공청원들이 청년 남녀들과 함께 씨비리 원동 북구 지방, 돈바쓰 탄광 등 공산주의 건설장에 나갔다.

결과 태고로 무연하던 씨비리의 벌판에 공장, 기업소들과 쏩호즈의 전야가 펼처지며 에니세이 강줄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가 일어서고 있다. 공산주의 건설장 마다엔 공청원들의 고귀한 로력이 스며있다.

쏘베트 정부는 공청이 공산주의 건설과 처녀지 개간에서 수행한 공적을 평가하면서 1957년 3월에 레닌 훈장을 수여하였다. 이리하여 다섯개의 훈장은 레닌 공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애국적 투쟁 행로를 빛내는 생동한 증거물들로 된다.

오늘 1천800 만명의 전투적 대오로 장성된 젊은 공산주의 건설자들의 대오—레닌 공청은 39년을 하루와 같이 당과 조국의 부름에 충직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산주의 건설에서 그의 애국적 전통은 더욱 빛날 것이다.

공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애국적투쟁 행로는 조선 청년들에게 모범으로 될뿐만 아니라 전세계 진보적 청년들의 운동에 고귀한 고무력으로 된다.

결함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의 정신

김 영 기

온갖 낡은 것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의 정신은 우리 나라 젊은 세대들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품성이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그가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거나 농업 협동 조합에서 일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우리 혁명의 승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하며 배우고 있다.

이와같이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공동적 위업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 투쟁과 승리에 대하여 공동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여기로부터 우리의 공동적 위업의 전진을 가로 막는 온갖 낡은 것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의 정신이 우러 나온다.

우리 생활의 전진은 새로운 것과 낡은 것——발생 발전하면서 있는 선진적인 것과 사멸해 가는 로후한 것과의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특히 우리 청년들은 용감하다. 그것은 새것에 민감하고 미래에 대한 리상의 감정이 강렬하고 영예를 사랑하는 그들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청년들은 항상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동경이 강렬하며 보수적인 것,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용감하다.

그러나 이는 청년들에게는 낡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과 생활에서 오유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청년들도 역시 그 적지 않은 부분이 낡은 사회를 거쳐 왔으며 또 우리가 생활하는 주위에는 낡은 유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만큼 우리들의 사상에는 낡은 사회의 흔적들이 남아 있으며 지식이 얕고 경험이 부족한 것만큼 때로는 사업에서 오유와 결함도 범하게 된다.

오늘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우리의 위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시시 각각으로 적대적인 사상을 침습시키고 있다. 적들은 자기들의 파괴 암해 활동을 위하여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이러한 낡은 사상에서 자기들의 발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이러한 적대적인 사상 잔재와 낡은 유습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판과 자기 비판의 무기를 들고 일상적인 사상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사상 투쟁이 중단된 곳에서는 반드시 침체와 부패가 일어나고 청년들은 락후해지며 심지어 혁명의 락오자로 떨어 질 수 있다.

혁명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비판과 자기 비판은 물과 공기처럼 필요하다.

비판과 자기 비판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에서의 결함과 착오를 극복하고 진보와 발전을 이룩하며 우리 혁명 대렬——전투적 집단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우리 사업과 생활에서 낡은 것과 보수적인 것, 착오를 발로하고 제거하며 새로운 것, 정확한 것, 진보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것은 엄숙한 사상 투쟁이다. 이 사상 투쟁은 낡고 락후하고 부정확한 행동을 발로시키게 한 사상 근원을 분석하고 그의 사상을 개조하게 된다.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진보와 발전을 원하는 청년들은 이러한 사상 투쟁을 환영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 속에서는 이러한 사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며 집단의 어떤 다른 성원들의 그릇된 행동을 보아도 본체 만체하는 사실이 있다. 어떤 동무들은 또 한 친한 사람이라 하여 옳지 못한 줄은 뻔히 알면서도 원칙적인 비판을 하지 않거나 혹은 지나가는 말로 한번 《충고》를 주고 무원칙하게 융화하고 만다. 또 다른 어떤 동무들은 자기 앞이나 꾸리려고 하며 자기 결함이 들어 날까보아 보신술을 써서 옳지못한 것, 낡은 것과의 투쟁을 회피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집단에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지들과 자신에 대해서도 해를 주는 유해로운 경향이다.

그러면 그들의 이와 같은 그릇된 경향은 어떤 사상으로 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우선 우리의 조국, 우리의 혁명 사업, 자기 집단의 운명과 그 리익에 관심하며 책임지는 집단주의 정신이 결여

된데로부터 나온다.

집단주의 정신으로 단련되지 못한 동무들은《공연히 남의 일을 타내서 시비할 것이 있는가? 제앞이나 잘 꾸려 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다른 동무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해도 이를 비판하지 않고 시정하여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개인 리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개인 리기 주의는 자기 자신의 리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집단의 리익에 대하여 생각지 않으며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집단의 리익을 주저 없이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부르죠아지들의 비렬한 도덕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개인주의가 용허 될 수 없다.

진실한 집단주의자는 자기 개인의 리익을 국가, 혁명,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집단의 공동적인 사업을 좀먹고 해치는 사소한 경향이라도 이를 묵과 하지 않으며 이를 반대하여 투쟁한다.

이와 같이 집단의 리익을 해치는 온갖 낡은 것, 락후한 것, 부정확한 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공동 위업에 참가하는 우리 매개 청년들의 고상한 의무이며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다. 집단의 공동 위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우리 혁명에 최대의 기여를 하려는 지향을 갖고 공동 투쟁의 실패를 안타까워하고 그 승리에서 최대의 기쁨과 생활의 보람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혁명 사업에 해를 주는 현상에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그럴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부 동무들은 우정에 대하여 그릇되게 생각하는데로 부터 친한 동무들의 결함에 대하여 원칙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친한 처지에 결함을 들춰서 면박을 줄 수야 있는가?》《동무 사이의„의"가 상하지 않을가》《친우의 의리상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은 우정을 사회 집단 생활과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는 우정에 대한 부르죠아적 견해에서 우러 나오는 것이다.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협소한 개인의 리익에 기초하며 다른 개인 또는 집단과 서로 배척하는 비속한《우정》이 존재한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이러한《우정》엔, 친우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존재할 수 없으며 다만 두 사람을 결합시킨 개인적인, 배타적인 리해 관계가 사라지면《우정》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친우

의 결함이나 옳지 않은 것, 그릇된 사상과 행동을 시정해 주려는 진지한 노력도 있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정이나 애정이 인민의 위업, 조국, 사회주의에 대한 복무의 공동한 지향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를 떠나서는 우정도 애정도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집단의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인민의 리익에 배치되는《우정》은 전혀 용허될 수 없다.

만일《친우에 대한 의리》라 하여 그가 옳지 않은 일, 사회에 해독을 주는 일을 폭로 비판하지 않고 감싸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의《우정》은 벌써 국가 사회의 리익에 배치되며 아주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정이란 결코 벗들이 범한 과오나 결함을 서로 용서하고 비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친우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그에게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며 그의 결함과 낡고 락후한 사상을 비판하고 시정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서 표현된다. 다만 이러한 우정만이 인민의 공동 위업에 대한 그들의 복무에 리익을 줄 것이며 공고히 발전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부 동무들은《제 앞도 똑똑히 가리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주제 넘다》고 생각하는데로 부터 비판과 자기 비판의 무기를 들지 않는다. 이런 동무들은 비판과 자기 비판이 강화되면 자기의 결함도 폭로될 것을 두려워서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아주 어리석고 유

〈관 료 행 사〉



해로운 사상이다.

이러한 경향에 빠진 동무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 결함이 있는 동무들이며 이 결함을 대담하게 발로하고 시정하려 하지 않는 동무들이다.

만일 자기 결함을 하루라도 속히 동지들 앞에 내놓고 그 방조 밑에 대담하게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 결함은 점차 자라서 구원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간단한 처치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방임해서 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않되게 하는 것과 같다. 자기에게 결함이 있는 이상 그것이 오늘 발로되지 않드라도 어느 날에 가서는 반드시 더욱 큰 결함으로 발로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는 개인에게도 집단에게도 더 좋지 않은 것이다.

자기에게 결함이 있다 하여 다른 동무들의 결함을 보고도 못본체하는 동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치 못할 뿐아니라 다른 동무에 대해서도 죄과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일부 동무들은《서뿔리 비판했다가 복수를 받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보신술을 쓰는 일도 있다.

물론 극히 적은 부분이기는 하나 이와같이 정당한 비판에 대하여 복수를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나오는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적은 실례다.

이와 같이 보신술을 쓰는 동무들은 역시 우리 혁명과 집단에 대하여 책임성이 부족한 것이며 또한 민청 조직과 청년 군중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동무들이다. 왜냐하면 민청 조직이나 군중은 언제나 정당한 비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비판에 대한 복수와 같은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무들은 개인 리기주의의 표현인 보신주의를 버리고 우리 혁명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온갖 낡은 것, 락후하고 부정확한 것, 결함과 오유를 반대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결함과 락후하고 낡은 것을 반대하는 사상 투쟁은 그 목적이 우리 혁명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며 매개 청년들의 사상에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혁명 승리를 촉진시키며 매개 동무들의 정치 사상적 각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때문에 결함과 낡고 보수적

인 것을 반대하는 투쟁은 엄격히 이 목적에 립각해야 할 것이며 어느 개인에게 단순히《타격》을 주기 위해서나《공격》하기 위해서 비판의 무기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때문에 비판과 자기 비판은 교양적 립장에서 진행 되여야 하며 동지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집단을 공고히 하는 립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엄밀히 사실에 립각하여 순결하고 량심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그러나 결함이나 부정적 요소 그 자체에 대하여서는 비타협적으로 투쟁 해야 된다.

특히 우리는 우리 동무들이 갖고 있는 일부 결함과 낡은 사상 요소들에서 발부칠 곳을 얻으려고 적들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높은 경각성을 견지하면서 이를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혁명 대렬에서 모든 결함과 낡고 락후한 것, 부정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상 투쟁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혁명 대렬의 통일과 단결은 일층 강화될 것이며 이는 우리 혁명 승리를 일층 촉진시켜 줄 것이다.



신사의 체면

리 정현 동무(기계 공업성 선반 관리국)는 신사 옷차림을 하고 거리에 나섰다. 그는 대동교 앞 본평양 네거리에 나서자 멀리 달려오는 자전거를 붓들어 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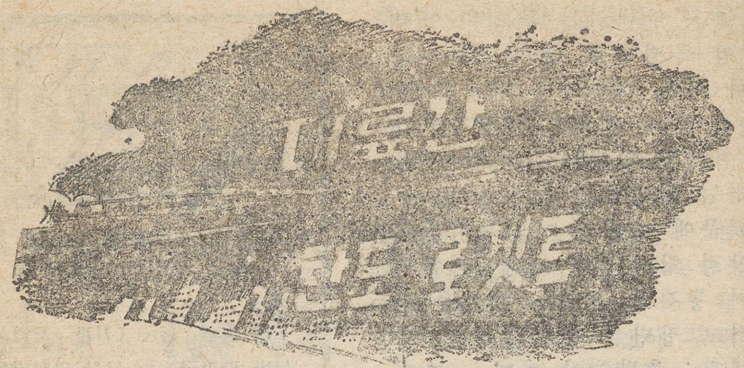
《여보게 교통 정리원이 보면 어쩔려구 그래?》리 정현 동무를 자기의 자전거에 태운 그의 친구가 걱정하는 말이다.

《괜찮아! 정리원도 사람을 보고 시비하지 무턱 야단치진 않으니까!》

그러나 리 정현 동무는 오산했다. 교통 질서에 무슨 두가지 규률이 있으랴?

신사 옷차림을 했다고 교통 질서 위반을 묵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후 네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교통 정리원 앞에 고개를 숙으리고 서 있는 젊은 신사와 그의 친구를 보았다.



쏘련에서 얼마 전에 성공한 초 장거리 다계단 대륙간 탄도 로케트는 세계 여론에 커다란 반향을 이르키고 있다.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는 이렇게 썼다. 《로씨야가 미국에 앞서 대륙간 로케트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은 세계 력량의 호상 관계를 현저히 변경시켰다.》

유명한 일본 군사 평론가 하야시 가쯔야는 더 명확히 말하였다. 《쏘베트 로씨야는 최신의 더 강력한 로케트를 만들기 훨씬 전인 1955년에 벌써 탄도 로케트 제조를 완성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로씨야인들은 로케트 폭격 거지들로써 쏘베트 지대를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을 분쇄하였다.》 일본 라디오 평론가 하라자와 가즈시게는 《계산에 의하면 이러한 포탄이 모쓰크바에서 뉴욕까지 나르는데는 30분이 요구된다. 그러한 속도하에서 포탄은 번개치듯 떨어지며 라다르 장치로써 그것을 아무리 고정시킨다 할지라도 그 작용을 방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륙간 포탄은 종국적인 종류의 무기라고 불릴 것이다》고 말하였다.

파리 출판물들은 쏘련 로케트의 성과적인 시험을 금년 여름에 실패한 미국의 대륙간 포탄 《아틀라스》의 시험과 또 아직은 제작에 착수했을 뿐 1958년에 가서야 겨우 시험할 미국의 대륙간 포탄 《티탄》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아틀라스》나 《티탄》의 어느 하나도 지구의 임의의 지점에 타격을 줄수 있도록 예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쏘련의 로케트와 동일시할 것은 못된다.

그러나 약간의 부르죠아 신문들은 《쏘베트의 위험성》으로써 독자들을 놀래우기 위하여 《쏘련이 새 탄도탄을 사용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쏘련은 력사적으로 단한번도 딴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비록 제국주의자들이 쏘련의 평화 정책면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완강히 묵살하고 있지만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대륙간 탄도 로케트란 대체 어떤 것인가?

대륙간 탄도탄 (엠 베 에쓰) —이것은 몇개 (2—3개)의 개별적 로케트로 구성된 다계단식 로케트이다.

이 로케트는 수직선으로 발사되여 급히 우로 올라가 조밀한 기압권을 극복한 다음 가볍게 목표물 방향으로 돌아서서 전진 운동을 계속하는바 그의 탄도 곡선 고도는 100만 메터이다.

그의 명칭이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탄도 로케트의 중요한 특성으로 되는 것은 8천 키로 메터로부터 그 이상의 거리에까지 이르는 원거리 비행이다.

이것을 탄도 로케트라고 부르는 리유는 그것이 다른 형의 로케트와 달리 전 탄도에 걸쳐 계속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시초에 즉 400키로 메터의 비교적 적은 포물선 거리의 범위에서만 조종되며 이 조종 범위를 벗어난 다음에는 보통 포탄과 마찬가지로 날아가는데 있다. 이 로케트는 시속 1만 6천 키로 메터에 달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

구조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대륙간 탄도 로케트는 정확한 비행을 유지한다. 그의 오차는 조준점으로부터 10—20키로메터 이하로 되리라고 본다.

이 로케트는 넓지 않은 장소에서 발사할 수 있다. 이 장소는 비교적 빨리 설비할 수 있으며 용이하게 엄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는 보통 비행장과 달라서 사실상 적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는다.

다음에 대륙간 로케트가 비상히 빠르고 또 수백 키로의 높이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떠한 비행기나 또는 현대 반항공 수단들로써도 대륙간 로케트를 포착 파괴할 수 없다.

만일 로케트가 1초에 6키로의 속도로 비행할 경우, 말하자면 목표물로부터 300키로의 거리에서 전파 탐지기로 포착되였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목표물에 도달하여 폭발할 순간 까지는 겨우 50초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은 심지어 보통 공습 경보를 내리는 데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로케트의 폭발로 주게될 타격은 사실상 전혀 돌연적인 것으로 될 것이며 또 그러한 타격의 작용도 그에 따라 커질 것이다.

상술한 모든 것은 대륙간 로케트가 그보다 낮게 완만히 비행함으로써 현대의 각종 반 항공 수단들의 타격을 받는 전략 비행기에 비하여 전혀 훨씬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생산하는 비용은 장거리 폭격기를 생산하는 비용의 약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탄도 로케트는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난 전쟁의 통계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원거리 폭격기의 수명이 평균 4—5회의 비행에 그치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탄도 로케트가 훨씬 경제적인 것이다.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출현은 구라파나 아세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미국은 돌연한 로케트의 타격을 받지 않으리라고 한 신화를 깨뜨려 버렸다. 이제는 벌써 어떠한 침략자라도 그가 지구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강력한 로케트의 보복 타격으로부터 모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쏘련의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성공은 세계 인민들 앞에 쏘련의 눈부신 과학 기술 발전 면모와 그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시위하는 것으로 되며 사회주의 사회 제도 아래서 끝없이 발전하는 창조력과 굽함없는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이와 함께 쏘련의 위력한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소유는 평화의 공고화와 새 전쟁 발생 위험의 감소를 위한 중요한 기여로 된다. 자본주의 나라 반동 신문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모든 상식있는 사람들에게는 쏘련의 군사력이 결코 침략의 수단으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와 반대로 이 위력은 어떤 침략자가 제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한다 하드라도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객관적 힘으로 된다.

중근동에서의 미국의 침략 책동은 저지되여야 한다

유 정 록

지금 세계 사회 여론의 관심은 중근동에 집중되고 있다. 중근동에서의 끊임 없는 미국 침략 계층의 도발적 행동은 선량한 사람들의 심정을 불안케 하고 있다.

쏘련을 위수한 단결된 세계 평화 력량에 의하여 애굽에 대한 영불의 침략적 만행이 저지된지 1년도 못되는 이때에 또다시 새로운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이 엄중한 정세는 미 영 침략 계층의 이 지역에 대한 식민주의 정책 특히 《아이젠하워 주의》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주지되여 있는 바와 같이《아이젠하워 주의》는 쏘련을 비롯한 평화 애호 국가들의 시종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맑아가는 중근동의 공기를 다시 흐리게 하고 있는바 이는 중근동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략탈하며 이 지역에서 날로 앙양되는 민족 해방 운동을 무력으로써 탄압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흉악한 《아이젠하워 주의》는 애굽, 씨리아를 비롯한 일련의 아랍 제국으로부터 응당한 규탄과 배격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중근동에서의 미국 외교의 기본적인 목적의 하나는 군사적 위협, 경제적 압력, 구데타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랄한 책동으로써 한 아랍 국가를 다른 아랍 국가에 대립시키며 또는 이 나라들을 하나씩 떼여내여 아랍 제국 간의 단결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랍 전선이 《아이젠하워 주의》를 이 나라들에 접수 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침략적 책동의 첫 대상으로 간주된 것이 사우디 아라비아 였다.

지난 4월 요르단에서 미국 침략 계층은《아이젠하워 주의》를 배격한 나불시 정부를 구데타로써 전복하였다. 이 당시 미국이 미 제6함대를 동 지중해에 파견함으로써 반정부 음모자들을 방조하였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요르단에서의 침략적 폭행에 뒤이여 미국 침략 계층은 그의 공격 목표를 씨리아에 돌렸다. 미국 침략 계층은 민족적 독립과 중립 주의를 고수하는 씨리아의 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경제적 압력, 군사적 위협 및 구데타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가진 수단을 모두 동원하면서 자기들의 침략적 흉모가 실현될 것을 타산하였다.

그러나 미국 침략 계층의 주관적 타산은 크나 큰 오산이였다. 그들의 침략적 흉모는 씨리아의 민족적 독립과 중립 주의를 견결히 고수하며 세계 평화 력량의 지지를 받는 씨리아의 애국적 력량의 단호한 반격에 의하여 분쇄되고 말았다. 이것은 《아이젠하워 주의》가 당한 가장 수치스러운 또 하나의 참패로써 그의 침략 체계 전반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는 파렬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 발전에 극도로 당황한 미국 침략 계층은 급작이 씨리아의 《공산주의화》에 관한 도발적 소동을 일으키고 반 씨리아 책동을 발악적으로 격화시켰다. 《공산주의화》에 관한 허위는 미국 지배층이 자기들의 침략적 책동을 음폐하기위하여 쓰는 상투적 수단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침략 계층의 선전과는 반대로 쏘련은 그의 탄생 첫날부터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에 엄격히 립각하여 비단 씨리아 뿐만아니라 이 지역 나라들의 주권과 자유와 평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 나라들의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심 없는 원조를 주었으며 주고 있다.

최근 시기에 진행된 아이젠하워 및 덜레스의 특사인 헨더슨의 중근동 방문은 《아이젠하워 주의》를 거부하고 미국의 파괴 음모를 파탄시킨 씨리아의 행동이 마치도 토이기, 이라크, 요르단 및 레바논 등의 그 린접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허구를 날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지금 미국 지배층은 이러한 허구 날조에 근거하여 토이기, 이태리, 요르단, 레바논 및 이스라엘 등으로 하여금 씨리아를 반대하는 도발적 행동을 감행케하고 그에 빙자하여 자기가 직접 씨리아에 대한 무장 간섭을 감행하려고 타산하고 있다.

이러한 연극의 내막은 지난 9월 7일 백악관에서 소위《씨리아 사태》를 토의한 후 발표한 미 국무 장관 덜레스의 성명에서 더욱 명백히 들어났다. 덜레스는 자기 성명에서 《필요에 따라》《아이젠하워 주의》에 예견되여 있는 강경한 조치를 씨리아에 적용할 것을 로골적으로 표시하였으며 아랍 제국의

내정 간섭에 필요한 미국 무력을 씨리아의 린접국들에 파견하는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침략 계층은 지금 요르단을 비롯한 레바논, 이라크, 토이기 등 씨리아의 린접국들에 미국 무기를 대량 반입하고 있으며 씨리아 연해에 미국 함대를 접근시키고 있다.

이제 와서는 《아이젠하워 주의》가 중근동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와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제반 사실은 《아이젠하워 주의》가 오직 매수, 위협, 공갈, 내정 간섭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골적 침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식민주의로서 중근동 및 세계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재 확인하여 준다.

영국의 어느 유명한 작가가 자기 글에서 워싱톤의 정책은 《모든 왕들과의 평화 그리고 모든 인민들과의 전쟁》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쓴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씨리아에 대한 미국의 침략적 흉모의 로골화는 《아이젠하워 주의》의 침략적 전 면모를 세계 인민들 앞에 더욱 적라라하게 들어 내놓았다.

이로 말미암아 아랍 인민들을 비롯한 온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미국의 침략 계층에 대한 증오와 격분은 일층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 침략 계층은 더욱 심한 고립의 심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지금 민족적 자주권과 자유와 평화를 고수하기 위한 씨리아 인민의 투쟁은 세계 광범한 계층의 지지 성원을 받고 있다.

중근동 지역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쏘련은 분쟁 문제 해결 수단으로써 힘의 사용을 규탄하며 중근동 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모든 간섭을 거부할 데 대하여 4렬강이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지금까지 한 두번만 제기한 것이 아니다. 민족적 주권과 평화를 고수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이 지역 나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정치 도덕적으로 지지하는 쏘련의 이러한 립장은 사회주의 강국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에서 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쏘련의 중근동 제국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두말할것도 없이 이 지역 및 세계 평화 유지의 크나큰 담보로 된다.

애급 대통령 나쎄르는 애급이 씨리아의 투쟁에 자기의 전체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력량을 가지고 무제한한 지지를 계속 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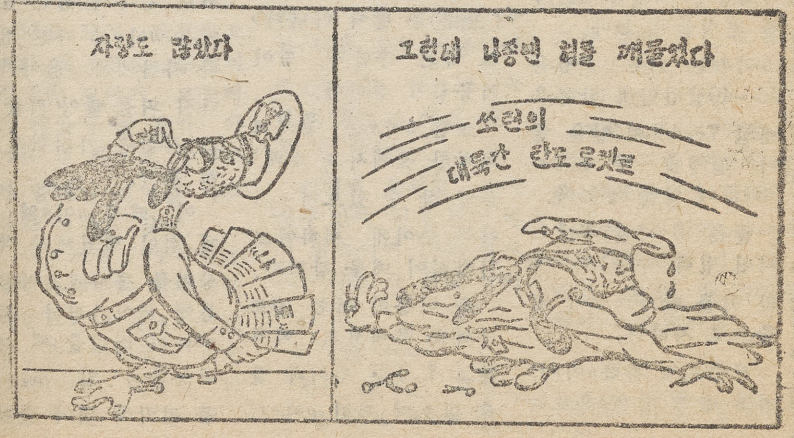
지금 씨리아에 대한 이러한 성원은 애급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선량한 사람들은 나쎄르와 공통된 감정으로 통하고 있다. 평화 애호 인민들 간의 이와 같은 련대성은 무엇보다도 고귀한 것이며 평화 력량의 강유력한 원천은 바로 다름 아닌 이러한 련대성에 있다.

쏘련을 선두로 세계 평화 력량이 확고 부동하게 장성 강화된 현 시기에 있어서 민족적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의 도발 행동은 더는 제멋대로 통할 수 없다.

미국 침략 계층은 바로 1년 전 영, 불 식민주의자들의 애급에 대한 야만적 무력 침략 행동이 어떠한 결과로써 종결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반드시 교훈삼아야할 것이며 또한 평화 력량이 1년 전에 비하여 가일층 불패의 힘으로 장성 강화되였다는 사실에 특히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 침략 계층이 중근동 지역에 대한 그의 도발적 흉계를 멈추지 않고 끝내 그를 확대하는 길에 들어선다면 영, 불 침략자들이 애급에서 당한 것보다 더욱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국 원자광의 운명〉



《프라우다》 지에서 전재

위생지식

"이"는 무서운 벌레이다

"이"는 무서운 벌레이다.

"이"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닭, 돼지 등 동물한테도 있다. 그의 종류는 50 여 종이나 된다. 사람에게 붙어 사는 "이"는 "옷이" "머리 이" "음부 이" 등 세가지로 나눈다.

그중에서"옷이"는 가장 번식률이 높다.

"이"의 보통 수명은 35~40일간인데 암컷은 매일 7~8개의 알을 쓸며 일생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3~8일 후에는 어린 벌레(유충)로 자라 피를 빨아먹으며 성충으로 자란다.

성충으로 자란"이"가 가장 살기 좋은 온도는 보통 30~32도이며 더운 것은 참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는 열의 높은 환자의 몸에서 배겨내지 못하고 기여나와 다른 적당한 장소 즉 건강한 사람의 몸에 기여 오르게 된다. 이 때"이"는 전염병을 전파한다.

"이"는《하루 밤에 삼간(三間)을 넘어 다닌다》고 하는 속담과 같이 이동성이 심하다.

또한 "이"는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도 오래'동안 살 수 있으며 기아와 추이에 대하여도 저항력이 매우 강하다.

즉 어름이 어는 0도 가까운 곳에서도 먹지 않고 1 주일 간이나 살 수 있으며 특히 "이"의 알은 생활력이 강하다.

"이"는 어떤 병을 전염시키는가?

"이"는 우리가 보통 《큰 고뿔》이라고 부르는 발진티프스와 《재룡병》이라고 하는 재귀열을 전염시킨다.

즉 발진티프스나 재귀열 환자의 피를 빨아 먹은 "이"가 다른 건강한 사람에게 옮아가서 다시 피를 빨아 먹을 때 그 사람은 가려워서 긁게 된다.

이 때에 "이"의 똥에 섞인 병원체가 작은 상처를 통하여 사람의 몸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가 터졌을 때 그의 내용물이 입, 코, 눈 등 점막에 튀여 들어간다. 혹은 손으로 눈을 비빌 때나 코를 쑤실 때도 들어간다. 이때에 그 사람은 전염된다.

발진티프스에 전염되면 39~40도의 높은 열이 나며 발진이 돋는다. 이 발진이 돋는 무렵에 환자는 정신이 흐려지고 헛소리를 치며, 몹씨 머리가 아프고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재귀열의 시초는 마치 학질을 앓을 때와 비슷하나 높은 열이 오래'동안 계속되며 등 및 팔, 다리, 종단지 등이 아파난다.

그러데 재귀열은 다 나은것 같다가도 2~3회 혹은 5회까지 거듭해서 앓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발진티프스나 재귀열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며 로동력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병 증세가 중해지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발진티프스와 재귀열을 예방하기 위하여"이"의 발생을 방지하며 이미 생긴"이"를 철저히 박멸해야 한다.

"이"를 철저히 박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1, 자비 소독 (끓이는 것)

끓는 물은 대부분의 병원성균과 전염병을 퍼뜨리는 벌레들을 죽인다.

즉 의복, 내의, 침구 등에 비누칠을 하거나 재'물을 타서 끓이면 더욱 효과적이며 물이 끓기 시작해서 30분 내지 1 시간 후에라야 완전히 사멸된다.

2, 증기 소독

증기 소독은 가장 살균력이 강하다.

먼저 가마에 물을 붓고 그 우에 시루를 놓고 의복 등을 시루안에 넣은 다음 덮개를 꼭 닫고 증기가 새지 않도록 잘 막는다.

이때에 주의할 것은 시루 안에 너무 많이 넣지 말것이며 100도에서 20~30분 간 끓일 것이다.

3, 건열 소독

건열 소독은 가정에서 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리미와 인두를 리용할 수 있다.

다리미와 인두는 200~300도의 온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열을 리용하면 5~15초에 병원성균과 벌레들을 사멸시키며 내의 등 옷솔기에 있는 "이"와 서캐도 죽일 수 있다.

4, 약물 소독

"이"를 박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로는 10~20%의 디. 디. 티나 3%의 헥사크로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 높은 "이"약을 덜어 놓고 쓰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피부를 해치며 불경제적이다. 반대로 %가 낮은 것은 오히려 "이"에 저항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이"약은 적당한 농도에 적당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세탁한 내의에 풀을 할 때에 디. 디. 티를 풀에 잘 섞어서 멕여도 유효하다.

중앙 위생 선전관

내가 믿어온 《하나님의 뜻》



나는 《안식교》를 믿어온 종교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독자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다니던 서평양 《안식교》의 《지도자》로 있던 안 병민이란 자는 얼마 전에 미제의 추악한 고용 간첩이라는 것이 판명되였다. 그는 교회 《지도자》라는 간판 밑에서 여러가지 악랄한 짓을 다 하였는데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던 나어린 종교 녀성 세명을 롱락하는 만행도 감행하였다.

처음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설마?》하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를 비롯하여 《안식교》를 믿는 신자들이 지금까지 그를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존경》해 왔던 때문이다.

그는 30고개에도 미치지 못한 젊은 사람이면서도 례절이 단정하고 매사에 심중해 보였다. 물론 이런 행동들이 모두 자기의 흉악한 간첩 음모를 실현하려는 데로부터 꾸며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나는 흉악한 미제의 앞잡이인 안 병민이가 부는 피리에 장단을 마춘 과거 생활을 반성하면서 지난날의 나의 저주로운 《종교》 생활을 더듬어 보려 한다.

물론 나는 그간 많은 고민을 하였다. 안 병민은 신자들 앞에서 입만 벌리면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겉 옷을 달라면 속 옷 까지 벗어주라!》 《오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대라!》고 설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하며 순종하는 자는 《래세》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옥》으로 간다고 하였다. 그가 바로 그렇게도 극성스럽게 설교한 《하나님의 뜻》이란 다름 아닌 《미국놈의 뜻》이 였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남》이란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를 식민지 노예로 만들며 우리의 재물을 탐내고 빼앗아 가는 원쑤 미국놈을 말하는 것이다.

보라! 오늘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국놈의 만행을! 그들은 조선 사람들을 《야만》으로 치부하면서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있으며 조선의 귀중한 재물을 마음대로 도적질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교회 《지도자》의 탈을 쓴 안 병민은 《겉 옷을 달라면 속 옷까지 주라》고 설교했다.

이것은 조선을 탐내는 야수 미제에게 조국과 인민을 고시란히 내주라는 것이다. 안 병민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마음대로 죽이며 도적질하는 미국놈의 도적 행세를 도와 주어야 하며 그들이 하는 대로 앉아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안 병민은 《안식교》의 교리를 교묘하게 미국의 《인종론》의 정당성을 선전하는데 리용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있은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게될 때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물어 뜯고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결심 하였습니다. 그때에 오직 《노아》라는 사람만이 결백하게 살았으며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 장차 큰 홍수가 날테니 제일 높은 산에 방주를 잡고 세상 만물을 한가지씩만 배에 거두어 드리라고 분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노아》는 10년을 그 산에 올라가서 배를 꾸미면서 사람들께 《하나님》의 말을 전달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비웃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르겠습니까! 금시 파랗던 하늘이 흐려지면서 비는 몇달을 두고 내렸습니다. 불원에 삼지 사방은 물 바다로 되여 《노아》의 일가만이 살아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 착한 《노아》는 세상이 너무도 적막하여 술을 마시고 취했는데 그만 하태까지 싹 들어내고 잤습니다. 이것을 본 맏아들은 아버지의 추태가 흉하다 하여 그냥 외면하여 돌아 서고 둘째 아들은 거북하여 옷을 가려주고 돌아서고 그 다음 망낭 아들만이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동정하면서 이불이랑 덮어 조심히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이 일을 《하나님》께 고해 받치면서 망낭 아들을 축복하여 《백인》으로 되게 하고 둘째 아들은 《황인》으로 되게하고 맏아들은 《흑인》을 만들어서 천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안 병민은 세상에서 《백인》은 제일 우월한 민족이며《흑인》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흑인은 백인에게 마땅히 천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였다.

교회 《지도자》 안 병민은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의 우람찬 건설과 인민들의 행복한 창조적 로력을 비방합에서도 《안식교》의 교리를 교묘하게 리용하였다. 그는 《현세》 에는 행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혀 《어지럽고 추악한 것》이라 하였다. 그는 가끔 《추악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였다. 그가 말하는 《현세》란 도대체 어느 사회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틀림 없이 그가 말하는 《현세》는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이 나래치는《지상 천국》으로 되여 가는 공화국 북반부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좁은 생활의 체험에서도 그가 말한 바와 같은 《어지럽고 추악한》 흔적을 사회주의로 자신 있게 달리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의 현실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도시와

마을들이, 공장과 기업소들이 재를 털고 수풀처럼 일떠서고 사람들 사이에 증오와 시기가 아니라 친선과 우애의 분위기가 꽃피여 가고 있지 않은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난 시기 민청 생활에 불성실하게 참가했다. 그런데로부터 나는 민청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민청은 말하자면 민청을 배반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에게 대하여 계속 자기의 동지로서 벗으로서의 충고와 포섭을 잊지 않았다.

지난 8월 초, 내가 수영에 소질이 있고 또 발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민청은 나를 전국 수영 강습생으로 추천하여 나는 원산에서 약 20일간 수영 강습을 받았다.

20일이란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이라고 할수 있다. 이 짧은 기간 실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어버이 같은 극진한 배려를 나는 몸으로 느끼였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요인들이 몸소 찾아 오셔서 《무엇이 요구되는가?》하는 것을 일일이 물으시며 친 자식과 같이 돌봐 주시였다. 특히 나와 같이 각지에서 모여온 수영 강습생들은 나를 친형제와 같이 대해 주었으며 자기들의 기술을 남김 없이 가르쳐 주군하였다. 그들은 물론 종교를 믿지 않았고 공장에서 농촌에서 지상 천국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젊은 건설자들이였다.

나는 이 짧은 수영 강습 생활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참다운 행복과 보람있는 생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안 병민이 설교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만 이루어 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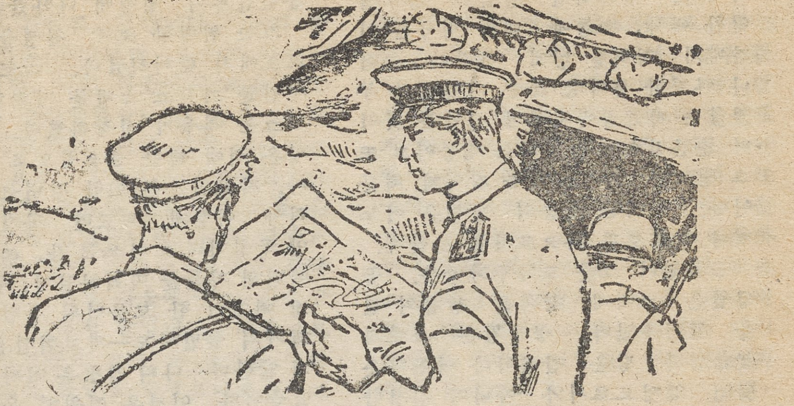
나는 안 병민이와 같은 반혁명 분자의 꾀임에 속아 《하나님의 뜻》으로 분장한 《미국놈의 뜻》을 믿었던 것을 천백번도 어리석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교훈으로 나의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있지도 않은 《래세》의 행복이 아니라 공화국 북반부에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선 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후비대이며 저수지인 민청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 하겠다.

평양시 중구역 서문동 3반

홍 기 풍 구술

본사 기자 조 경 직 기록

정정
본지 9호 21페지 2단 13행의 15.38%를 15,398%로 정정함



증 오

끄쓰딴찐 핀 (쏘련)

그는 힘세고 재빠른 소년이였다. 그는 항상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자기는 아직 힘도 부족하고 재빠르지도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할 수 있는데 까지 자신을 훈련하였다. 그가 기여 오른 나무는 그에게는 낮아보였다. 그는 별까지 미치는 나무 꼭대기에 퍼진 가지를 공상한적도 있었다.

만일 그가 싸움을 하게되면 완전히 이길 때까지 정신을 잃고 싸웠다. 그는 마음씨 좋은 아이여서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동무들과 곧잘 나눴다. 오직 승리만은 그들과 나눌 수 없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조고만치의 승리도 양보하려하지 않았다. 승리는 오직 그에게만 속하여야 하였다.

그는 자부심만 센 아이는 아니였다. 승리는 그에게 자만심을 야기시키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랑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매우 자기를 존중히 여겼다. 승리는 자존심에 대한 권리를 주었으며 바로 이때문에 그는 승리를 그렇게 갈망하였던 것이다.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불한당이 될수도 있었다. 그는 남의 과수원의 사과를 도적질하기 시작하였다. 높은 사과 나무에 기여 올라서 적이군 로인이 가까히 오는 것을 알자 우로부터 바로 그우에 뛰여 내려 그가 정신을 잃도록 놀라게 하였다. 보스크레쎈스크와 끌름나역 사이에서 그는 기차 지붕에 몰래 기여올랐다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을 때에 뛰여내린 적도 있었다.

그에게는 정력과 매우 비슷한 과격한 성미가 자라났다. 그러나 그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정력과는 반

대이다. 왜냐하면 생활과 창조에 대한 애착, 로동에 대한 의욕은 인간에게 정력을 낳게 하지만 그러나 과격한 성미란 것은 기껏해서 부질없는 자존심에서부터 생기는 것이며 순간적으로 발현하는 재능이고 또 그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능의 발현은 어느 때나 본질로써 타오르지는 못한다.

공청원이 그를 도와주려왔다. 공청원은 그에게 참다운 생활의 길을 열어주었다. 공청원은 그에게 놀음깜과 같은 감정이나 어른다운 헛된 열정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배워주었다.

생활의 거대한 힘이 그를 붙들었다. 그는 자기의 힘을 무엇엔가 바쳐야 하였다. 무엇인가를 위하여 승리를 향하여 투쟁하여야 하였다. 기차보다도 더 빨리 날고 제일 높은 나무보다도 더 높이 오른 생활은 승리나 다름 없는 것이다.

알렉싼드르 지보취낀은 중공업 인민 위원부 (重工業 人民 委員部)에서 기사로서 일하였다. 그리고 우라르 차량 공장 건설 공사에 참여하였고 모쓰크바에서 쏘베트 궁전의 철근 공사도 하였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젊은 건설자들의 창조적이며 감격적인 로동이였다. 즉 그것은 위대한 창조적 사상의 표현인 평상시의 영웅적 로동— 제도와(製圖)벽돌과 강철 등의 사업을 훌륭히 구체화한 자랑스러운 로동이였던 것이다. 모쓰크바 프로레타리아 사단의 대렬에서, 그다음에는 포병 학교에서, 그는 자기가 건설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되는 엄중한 시기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는 지원병으로써 분란인과의 전쟁에 나아갔다.

그는 위대한 조국 전쟁을 국경의 초소에서 맞이하였다. 그는 소위의 지위를 가지고 소대를 지휘하였다.

그는 싸우기 시작하였다. 그의 심장은 적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다. 지보취낀은 또한 겁내는 자, 승리야 어떻게 되였던 자기의 생명만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 조국을 잊어버린 자들을 미워하였다. 원쑤들에게 빼앗긴 한 모퉁이의 산림이나 한 뙈기의 풀밭에도—지보취낀은 나에게 말한다—나의 심장은 터지는듯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였는데 그런데 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쏘베트 사람이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따윗놈은, 그따윗놈은……알렉싼드르 지보취낀은 키가 크고 훤칠한 청년이다. 그는 맑고 선량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의 마지막 말마디를 찾으려고 할 때 그의 그 맑은 눈에는 시꺼먼 증오의 불'길이 이글거린다. 그는 가장 심혹하고 가장 흉악한 말마디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주'대없는 자, 무기력한 자, 겁쟁이들, 우리의 산림과 풀밭과 촌락과 도시며 우리의 동포를 귀하게 생각지 않는 자들을 증오하였다.

—내가 전투에서 무서운 악의와 무서운 모욕에 사로잡힌 것은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보매 아직도 싸울 수 있는데 말이지요. 매우 곤난이야 하겠지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쓰러지지, 그야말로 지옥이지요. 그래도 고수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벌써 당황해서 목숨만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놈은 전사로서는 한푼어치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놈은 죽어도 좋습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싸움에서 조장 메슈꼬브가 부상당했습니다. 바른 손을 몹시 상했어요. 피가 콸콸 쏟아지고 메슈꼬브는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사격이 어찌나 심했는지 그를 옮겨 갈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메슈꼬브에 달려들어 그손을 처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싸움에서 그 폭풍같은 사격 아래서 말입니다. 메슈꼬브는 죽겠거든요. 그는 곧 상처를 처매지 않으면 출혈로 죽겠으니까 《지보취낀》하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버려두오, 엄폐부로 기어들어가오. 당신이 죽습니다.》《아니오》나는 말했습니다. 《동무를 내버려두지는 않겠소. 나는 죽어도 좋지만 동무는 살려야겠소. 동무는 참다운 전사니까. 동무는 그럴 가치가 있소》나는 상처를 처매고 메슈꼬브를 화선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를 땅에 놓았지요. 그랬더니만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오래 누어있지 않겠소. 지보취낀 동무. 조금 있다가 대포로 기어가서 왼손으로 사격하겠소, 나는 조금도 아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요. 내게는 이 순간에 싸움에서 떠나는 것처럼 더 아픈 것은 없으니까요. 나는 그 아픔을 도무지 견디어 낼수 없습니다》. 나는 메슈꼬브의 이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는지 도무지 리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자존심을 가질수 있을까요?



× ×

온 군대가 알렉싼드르 지보취낀이 지휘하는 훌륭한 포병대를 알고 있었다. 이 포병대는《지보취낀의 포병대》라고 불렀다. 지보취낀 포병대는 정확한 사격으로써 적을 소탕하였다.

지휘부에서 부대장들에게 복잡한 과제가 맡겨질 때에는 부대장들은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원호에 지보

취낀 포병대를 부탁합니다》

지보취낀의 이름은 전 군대가 알고 있었다. 그 포병대의 대원들은 문자 그대로 쇠로 만든 사람들이였다. 그 포병대의 대포까지도 사람처럼 적들을 증오하는 것 같았다.

그 포병대는 적을 잘 들어 맞쳤다. 그들은 번개 처럼 이동하였다. 그들은 적들에게 이곳저곳에서 무서운 타격을 주었다. 적들도 역시 지보취낀 포병대를 잘 알고 있었다. 이 포병대를 두려워 하였으며 증오하였다.

지보취낀은 자기 일의 능수였다.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 능숙하다는 것은 적에 대한 증오심과 분리될 수 없다. 증오심은 능수를 낳는 것이다. 전쟁에 있어서는 능숙, 이것은 증오심의 중매이다. 전쟁에 있어서 능숙은 싸늘한 타산에서는 흘러나오지 않는다. 평정한 마음은 사수(射手)의 손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한 사수는 어느 때나 들어 맞치지 못한다.

지보취낀이 지휘하던 포병대는 적들을 용서없이 때려부셨다. 지보취낀의 이름은 결정적으로 그 포병대에 고정화되였다. 이것은 벌써 주검의 전투에서 얻은,피로써 얻은 명성이였다. 영예는 그러한 명성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짜레전 소좌는 지보취낀에게 적의 취사장(炊事場)을 소탕하라고 명령하였다—알았습니다—지보취낀은 말했다—그런데 조곰만 기다리게 해주시오—그러자 소좌는 《건왜?》하고 반문하면서 대견하게 지보취낀을 쳐다보았다. 소좌의 앞에는 보통 포병대장이 서 있는 것이 아니였다. 《지보취낀의 포병 대장》이 서 있었다. —병사들이 점심하러 취사장에 모여들때까지 조곰 기다리게 해주시오. 그들이 《과자》를 먹고 있을 때에 부시게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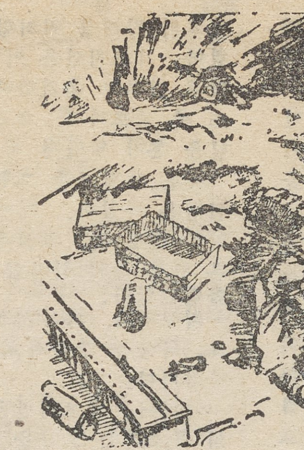
소좌는 허락하였다. 그는 성공할 것을 의심치 않았다. 이제 지보취낀 포병대의 포구들은 적에게 《과자》를 내줄 것이다. 지보취낀의 말은 신성하였다. 그것은 벌써 하나의 영예였다. 이백 오십명의 병사들이 지보취낀이 준 달콤한《과자》맛을 보았다. 이백 오십명의 분란인의 시체는 포탄에 산산히 부서진 취사장 곁에 널려지고 말았다.

지보취낀 포병대는 하루에 열 여덟번씩 적의 공격을 쳐물리였다. 그것은 무서운 싸움이였다. 필사적인 싸움이였다. 어렸을 때 지보취낀은 아이들과 영악하게 싸웠다. 그러나 그가 지운 아이와는 언제나 화해하였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악의란 것은 있어본 적이 없었다. 어렸을 때 그는 언제나 용감하게 싸웠지만 그러나 악의를 품고 싸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지보취낀은 적과 싸우고 있었다. 그의 증오로 가득차고 조국의 땅과 자기 인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한 그의 심장은 우리 땅에 침범한 매개의 분란인 병사와 독일인 병사들이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몇백번씩 주검을 당하라는 증오로써 불탔다.

전투에서 지보취낀은 쓰러저 넘어가는 우리의 녀성들과 아이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그는 적이 방화한 불붙는 마을들의 붉은 하늘과 파괴된 우리의 도시들을 보았다.

지보취낀의 적에 대한 증오심을 가라앉힐 그러한 힘은 없었다.

전투는 열 두시간 계속되였다. 대



포는 찌렐정게 달았다. 조준수 (照準手)들은 직접 조준으로 사격하였다. 적은 많은 병사를 잃었다. 그러나 련이어 새로운 예비대를 몰아대여 공격하여 왔다. 지보취낀 포병대는 결사적으로 싸웠다. 분란군의 지휘부는 이를 갈면서 이 포병 중대에 련이어 새로운 병력을 몰아대였다. 적은 이러한 포병대 하나가 아니라 열개라도 없새버리기에 충분할 만한 그러한 화력을 이 포병대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 포병대는 어디까지나《지보취낀 포병대》였다. 그는 적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면서 완강하게 항거하였다.

적은 소이탄(消夷彈)으로 수림에 불을 질렀다. 불은 포병대에 다가들었다. 주위에서는 수풀, 벗나무 등 모든 것이 탔다. 그것은 지옥이였다. 그러나 포병대는 견디어냈다. 지보취낀의 심장은 터지는 것 같았다. 지보취낀과 함께 자기의 전투 생활을 보낸 사람들이 쓰러져갔다. 그가 전투에서 친해진 사람들, 그가 그렇게 사랑해본 적이 없으리만치 사랑하는 사람들—왜냐하면 세상에서 전우에 대한 사랑,피로써 맺어진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그 사람들이 죽어갔다.

지보취낀은 그들을 모두 구해주고 싶었다. 그들 모두에게 자기의 동지적인 말을 해주고 싶었다. 그들에게 싸우는 것을 배워준 것은—그들을 교육한 것은 지보취낀이 아니였던가. 지보취낀은 자기의 전우들에게 그들이 그의 심장의 온기와 비롱을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도록 최후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들, 정직하고 고귀하며 조국을 위하여 신성한 최후를 고하는 그들을 눈짓으로 나마 바래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적들은 대여들었다. 그리고 지보취낀은 싸워야 하였다. 불은 그의 주위에서 무섭게 서둘러댔고 탄함(彈函)가까이 기여들었다. 불은 벌써 쌓아올린 탄함더미가 있는 땅을 핥고 있었다. 언제 포탄이 터지기 시작할지 모를 지경이였다. 지보취낀은 탄함을 내던져서 적의 포탄에 패운 웅뎅이로 끌고가려 하지 않았다. 지보취낀은 적과 싸우는 것처럼 결사적으로 불과 싸웠다. 그의 옷이 타기 시작하였다. 불은 그의 눈을 멀게하고 연기는 그를 질식시켰다. 지보취낀은 불과 싸웠다. 그는 탄함을 안전한 장소로 넘어 놓

았다. 적의 포탄, 지뢰, 총탄이 그의 주위에서 미쳐 날뛰였다. 수천의 파편이 지브취낀을 죽이려고 그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싸웠다. 그가 공연히 주'대없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미워한 것은 아니였다. 그는 그들을 미워할 권리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포병대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갔다. 그들은 벌써 대포를 쏘는데도 부족하였다. 그는 사격을 멈춘 대포의 하나로 뛰여가서 모든 대포의 조종을 혼자서 하면서 쏘기 시작하였다. 그는 탄합에서 포탄을 끄집어 내서 그것을 자기 옷에다 문지르고 넣어서 쐈다. 그는 벌써 포병대에 혼자 남았다. 불 속에서 데고 눈이 멀었으나 증오심은 그의 눈과 귀를 대신하였다. 그는 증오의 마음으로 적을 눌렀다. 이 전투에서 지브취낀이 죽지않은 것은 기적이 아니다. 적은 이러한 사람들을 죽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법칙, 모든 타산, 모든 군사 과학,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자기에게 자기의 힘 즉 자기의 증오심의 힘에 복종시키면서 깨뜨려 버리고 만다.

적은 포병대에 많은 대포로써 일제 사격을 하였다. 지브취낀은 사격하였다. 포탄의 파편과 탄환은 대포의 방패를 비처럼 퍼부어 짤라냈다. 지브취낀은 이 대포를 버리고 다른 대포로 옮겨갔다. 이 대포에서 또 저 대포에서 그는 전체 포수의 일을 혼자 하면서 적을 쏘아댔다.

적은 포병대를 포위하였다. 지브취낀은 싸웠다. 여기서 그는 말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의 살아 남은 전사 중의 한사람의 목소리임에 틀림없었다.

—지브취낀 나가시요, 기여나가시요, 목숨을 구하시요, 모든 것은 끝장입니다.

—아니다. 지브취낀은 고함쳤다. 그의 목소리는 포성을 뒤덮었다—안가겠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동지였었고 그가 믿었던 이 사람을 증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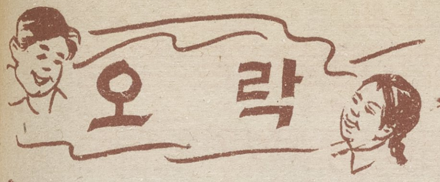
그리고 지브취낀은 포병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싸웠다. 그는 요란한 《만세》소리를 듣는 그 순간까지 싸웠다. 이것은 우리 부대가 가까이 온것이다. 이것은 우리 부대가 적을 소탕하면서 지브취낀의 포병대로 돌파하여 온 것이였다.

지금 알렉싼드르 지브취낀은 대위이며 쏘베트 동맹의 영웅이다. 그는 응당히 높은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는 적을 증오하였다. 그리고 그때문에 쏘베트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편집 위원회 김 학 연(주필)
김 상 민 김 수 백 박 춘 실
양 동 섭 조 채 현 현 영 호

청년생활 제 10 호 1957년10월 1일 인쇄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1957년10월 7일 발행

인쇄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25 원) ㄱ—40643 50,000부



뽈 운 동

(실외 오락)

一, 유희 조직

유희자들을 같은 수의 두편으로 나눈다.

二,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유희장—그림과 같이 40~50메터의 거리를 두고 두개의 선을 긋는다.

三, 유희 방법

① 두편을 다시 같은 수로 나누어 각각 출발선을 향하여 1렬 종대로 마주 서게 한다.

② 제 1출발선에 정렬한 선두 유희자는 지도자의 출발 신호에 의하여 뽈을 가지고 모둠발 뛰기로 제 2출발선에 있는 자기 편의 선두 유희자에게 뽈을 전달하다.

③ 뽈을 받은 유희자는 인계자를 업고 (뒤로) 뛰어가 제 1출발선에 있는 선두 유희자에게 뽈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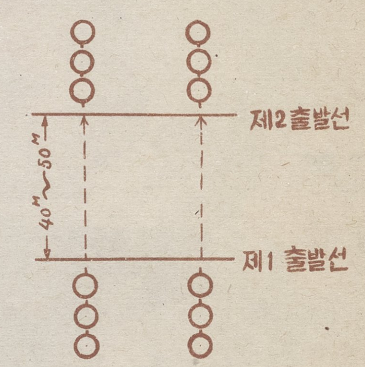
④ 뽈을 전달한 유희자들은 따로 정렬한다.

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유희를 계속하되 먼저 끝난 편이 이긴 것으로 된다.

四, 주의할 점

① 뽈을 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출발선에서 하게 할것.

② 다시 유희를 할 때에는 대렬의 유희 동작을 교대해야 한다.



수 풀 이

(실내 오락)

여기에 7개의 산수 식이 있다. 그는 1에서 9까지의 수로 되여 있다.

이 식의 답들이 각각 1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겠는가? 계산은 가, 감, 승, 제법과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1 2 3 = 1

1 2 3 4 = 1

1 2 3 4 5 = 1

1 2 3 4 5 6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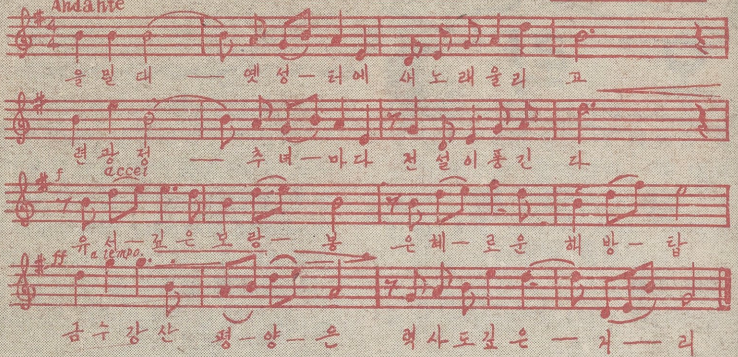
1 2 3 4 5 6 7 = 1

1 2 3 4 5 6 7 8 = 1

1 2 3 4 5 6 7 8 9 = 1

평양의 노래

김 춘 강 시
리 면 상 곡



2. 청류벽 굽어돌아 대동강 흐르고
릉라도 실버들도 흥겨워 춤추네
새거리와 새광장 새살림을 펼치니
아름다운 평양은 우리의 연주수도

3. 건설의 노래소리 하늘을 뒤덮고
혁신의 대렬들은 대지를 구른다
새희망 새 행복 가슴마다 꽃피는
나의거리 평양은 인민의 새운거리

